



삼성, AI 시대 이끈다... CXL·HBM 공개 10



우리銀 이어 하나銀도... 홍콩ELS 자율배상 15

BUY KOREA BUY BOND
채권 투자는 KB증권

*투자 전 발행일 및 신용등급서 확인 필수 *증권사별 보유 종목 다양 *신용등급 변동 가능 *신용등급 하락 시 원금 손실 가능성 *신용등급 하락 시 원금 손실 가능성 *신용등급 하락 시 원금 손실 가능성

코스피(27일)	2755.11 (-1.98P)	코스닥	911.25 (-4.84P)
환율(달러당 원화)	1348.70 (+9.20원)	금리(국고채 3년물)	3.288% (-0.013%p)

국내투자 168兆... 현대차·LG, 韓경제 '봄마중'

尹대통령 "그림자 조세 18개 폐지·14개 감면"

현대차, 3년간 8만명 직접 채용
년평균 22.7兆 투자... 총 68兆

LG, 2028년까지 100兆 '베팅'
전장 등 국내 투자액 50% 투입

고물가·고금리 등의 여파로 경기불황이 장기화하자 재계가 경기 회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7일 현대자동차그룹과 LG그룹이 발표한 국내 투자 규모는 168조 원이다. 이들 기업은 대규모 투자로 내수 진작을 돕고, 그룹 신성장 사업의 차별화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글로벌 경영환경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성장과 혁신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선 투자와 인재 채용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재계 총수들의 판단이다.

▶관련기사 10면

이날 현대차그룹은 향후 3년간 국내에서 8만 명을 직접 채용하고, 68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고용과 투자로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고, '퍼스트 무버'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룹 측은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합되는 빅블러(Big Blur)

현대차·LG 국내 투자계획

현대차그룹	2024~2026년
68조원 투자	경상투자 35.3조원 R&D 투자 31.1조원 전략투자 1.6조원
8만명 채용	미래 신사업 추진 4.4만명 사업확대 경쟁력강화 2.3만명 고령 인력재고용 1.3만명

※직접채용 기준으로 추가 고용 유망 11.8만명 포함해 전체 고용 효과 19.8만명 예상

시대와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끊임 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의 이번 국내 채용과 투자는 연관 산업의 생태계 활성화 및 고도화 촉진으로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의 직접 채용 규모는 8만 명이며, 완성차 부문 고용 증가에 따른 국내 부품산업 추가 고용 유망 11만 8000명을 고려하면 전체 고용 효과는 19만 8000명에 이른다. 건설, 철강 등 타산업까지 포함 시 고용 창출 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2만 3000명의 인력도 새로 고용한다. 고령화 사회에 맞물려 1만 3000명에 달하는 고령 인력도 재고용한다.

LG그룹	2024~2028년
100조원 투자	분야별 R&D 투자 55조원 경상·시설투자 45조원
	산업군별 미래 기술 및 성장 분야 50조원 기존 주력사업 50조원

*미래 기술: 인공지능·바이오·클린테크(ABC 분야)
성장 분야: 배터리, 자동차 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현대차그룹은 대규모 고용 창출과 함께 2026년까지 3년 동안 국내에 68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연평균 투자 규모는 약 22조 7000억 원으로, 2023년 17조 5000억 원 대비 30% 늘어난 규모다.

투자는 핵심 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R&D)과 연구 인프라 확충, 전기차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공장 신증설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국내의 대규모 고용 창출과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을 중심으로 미래 사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다양한 신사업은 물론 기존 핵심사업 분야에서도 차별화된 기술과 제품으로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G그룹은 2028년까지 약 10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한다. (주)LG는 2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중장기 투자 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바이오, 클린테크와 같은 미래 기술과 배터리, 자동차 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성장 분야에 국내 투자액의 50%를 투자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삼성그룹은 향후 5년간 450조 원을 투자하고 8만 명을 채용한다고 밝힌 2년 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시 삼성은 전체 투입액의 80%를 국내 시장에 집중하기로 했다. 같은 해 SK그룹 역시 2026년까지 247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5만 명의 인재를 국내에서 채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내 투자 규모만 179조 원이다. SK그룹 관계자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계획을 잘 이행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예정된 기업들의 투자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 자동차,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이동욱 기자 toto@

정부가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각종 부담금을 낮추고 규제를 걷어내기로 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자금을 공급해 준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 규제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3·15면

윤 대통령은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라 하며 '국민건강증진이나 환경 보전과 같은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부담금도 있지만, 세수에 묻지 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각종 규제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한시적 적용유예"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이번



SK하이닉스 "美인디애나주 '패키징 공장' 건설 검토중"

외신 "HBM 특화시설 2028년 가동"
퍼듀대 반도체 인재 조기 확보 분석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인디애나주에 있는 퍼듀대학을 중심으로 고급 반도체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팍 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검토 중이지만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최근 소식통을 인용해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파에트 지역에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건설한다고 보도했다.

해당 소식통은 SK하이닉스가 이 공장 건설을 위해 40억 달러(약 5조 3620억 원)를 투자하고, 2028년 가동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K하이닉스 이사회는 조만간 이 결정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SK하이닉스가 미국 최대 반도체·마이크로 전자공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 중 한 곳인 퍼듀대학의 엔지니어 풀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감안해 애리조나주로 최종 결정했다고 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업계가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SK하이닉스는 향후 반도체 인재 수혈을 위한 수단으로 퍼듀대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장 건설이 확정되면 인디애나주 및 연방 세제 혜택과 기타 형태의 지원도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달 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SK하이닉스가 인디애나주를 반도체 패키징 공장 부지로 선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해당 공장이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들어갈 고대역폭메모리(HBM) 제조를 위한 D램 적응형 특화 시설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팍 사장은 이날 오전 SK하이닉스 이전 본사에서 열린 제76기 정기 주주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검토 중이지만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반기 내 공장 부지를 발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오전 SK하이닉스는 경기도 이전 본사에서 제76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팍 사장은 주총에서 "올해는 전체 D램 판매량 중 HBM 판매 비트(bit) 수가 두 자릿수 퍼센트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는 전체 D램 판매량 중 HBM은 한 자릿수 퍼센트였다"며 "올해는 계속 경쟁력을 강화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손실이 컸던 낸드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익성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박민욱 기자 pmw7001@



원·달러 환율 연고점 경신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경신하며 달러당 1350원 턱밑에서 마감했다. 27일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보다 9.2원 상승한 1348.7원에 장을 마쳤다. 원화는 이날 아시아 통화 약세에 동조하며 약세를 보였고, 엔화도 시장 예상과 달리 약세였다. 엔·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달러당 151.97엔까지 올라 1990년 7월 이후 약 34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관련기사 8면

연합뉴스

기업성장 저해 시설규제 개선 중소 경영난 해소 42兆 공급

에 8년 만에 재도입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라며 "이러한 규제들은 정책 목적이 있어서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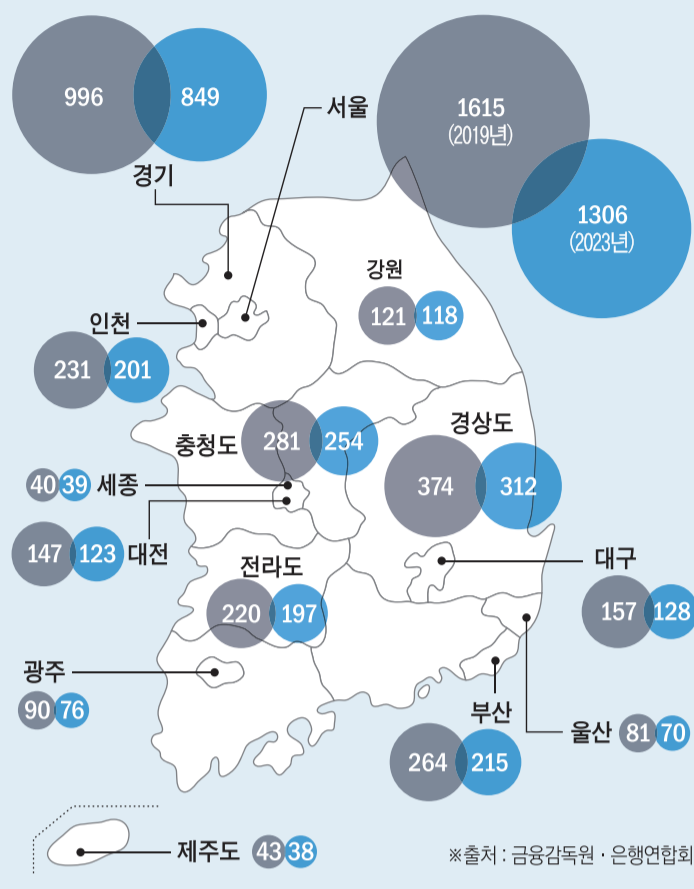
윤 대통령은 "부담 경감 방안들과 함께 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펼칠 것"이라며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함께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 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대환 기자 vishalist@

〈방문고객〉

‘하루 9명’ 은행 지점... “고령층 어떡해” vs “폐점은 수순”

5대 은행 지역별 점포수 (단위: 개)
※ 연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지점·출장소 합산



④비용 절감에 통폐합 가속

최근 5년간 1000개가량의 은행 점포가 사라졌다. ‘손 안에 은행’이 보편화되는 등 스마트뱅킹 시대를 맞아 점포를 찾는 고객이 급감하면서 소위 ‘유지비가 더 드는’ 오프라인 점포를 통·폐합해서다. 문제는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금융교육을 통해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시니어 특화 점포를 확대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지점과 출장소 등 점포(특수은행 포함) 수는 5733개로 약 5년 전인 2019년 12월 말(6698개)보다 965개 줄어 들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점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926개로 2019년 말(4660개) 대비 734개 줄었다. 같은 기간 지역별 점포 감소 수는 △서울특별시 309개 △경기도 147개 △경상도 62개 △부산광역시 49개 △인천광역시 30개 △대구광역시 29개 △충청도 27개 △대전광역시 24개 △전라도 23개 순이다.

모바일 금융거래에 내방객 줄자 전국 은행점포 5년새 965곳 줄어 수도권 외 지방 점포 감소율 ‘심각’ 도서·산간 금융소외계층 속수무책 시니어 디지털금융 역량 강화해야

서울과 경기도의 점포 감소 수가 지방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감소율은 지방이 더 컸다. 지난해 말 기준 경상도의 점포 수는 312개로 전년(321개)보다 9개 줄면서 2.8% 감소했고, 전라도는 197개로 전년(202개)보다 5개 줄면서 2.5% 감소했다. 서울특별시 1306개로 전년(1334개)보다 28개 줄어 2.0% 감소했고, 경기도는 849개로 전년(856개)보다 7개 감소해 0.81% 줄었다.

일부 지방 및 도서산간 지역은 줄일 수 있는 점포 자체가 많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도심지나 주요 거점에만 점포가 있기 때문에 줄일 만한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은행의 급격한 점포 축소는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다. 특히, 도서·산간 및 지방에 거주하는 금융 소비자에게는 더욱 취약하게 다가올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도시들의 노령화 지수는 강원권(138.3)과 경성권(133.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강원도는 5대 은행의 점포 수가 5번째로 적은 곳이다.

은행들은 시니어 점포 등 고령자를 대상으로 늘리고 있지만, 이마저 수도권 중심이다. KB국민은행은 영업점 형태의 시니어 점포는 따로 없고, 뱅크 차랑을 개조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만든 ‘시니어라운지’를 서울과 인천 1대씩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매일 25일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복지관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시니어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회 사무총장은 “연간 약 300개의 은행점포가 폐쇄되고 있는데, 그중 낙후되거나 고령화된 지역이 많아 지역 시니어들의 금융 접근성이 취약해지고 있다”면서 “금융교육을 통해 시니어들의 디지털 금융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흥미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참여형·체험형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큰 글씨·쉬운 용어... 디테일한 배려에 대만족

르포 신한銀 시니어 특화 지점

“다른 곳에 가면 어디로 갈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바닥 색깔을 업무에 따라 다르게 해놔서 편해요. 자동화기기(ATM) 사용도 너무 어려웠는데, 직원이 일일이 알려주니 조금 더 견뎌라도 신립점으로 옵니다.” (64세 최모씨)

27일 오전 방문한 신한은행 신립점 내부는 외양부터 일반 점포와 큰 차이를 보였다. 신한은행이 2021년 은행권 최초로 신립동에 개설한 ‘디지털 맞춤 시니어점

고령층에 맞춰 업무별 색깔 유도선 밀착 안내에 안심... 화상창구 인기

’답게 고령층의 눈높이에 맞춘 티가 났다. 우선 바닥에 칠해져 있는 네 가지의 색깔 유도선이 눈에 띄었다. 고령자들이 업무별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선을 만들어 놓은 것. △초록색은 단순 업무 △빨간색은 예·적금 △노란색은 화상상담 △파란색은 대출·외환으로 구분돼 있었다. 이날 대기 좌석에 앉아 있는 10여 명

의 고령자 고객들은 본인 순번이 되면 바닥에 색깔을 따라 창구로 이동했다.

ATM 화면도 고령층이 보기 쉽게 큰 글씨로 쉬운 용어로 돼 있었다. 예를 들어 계좌 이체 대신 ‘돈 보내기’, 출금은 ‘돈 찾기’라는 식이다.

번호표 발행기 앞에서 고객을 도와주고 있던 이성훈 로비 매니저는 “80대 이상의 고령층이나 귀가 어두운 분들은 직원의 안내가 필수적”이라고 귀띔했다.

신립점의 모토는 ‘단순함’과 ‘편안함’이다. 고령층이 어려워하는 디지털을 이용하



신한은행 신립동지점에 설치된 화상창구에서 시니어 고객이 상담사와 상담하고 있다.

는 업무도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쉽게 이뤄진다 보니 화상 상담 창구 이용률은 신한은행 내 전국 1위를 기록할 정도다. 일 평균 화상 상담 창구 고객은 20명 수준.

최영미 신한은행 신립동지점장은 “고객특화점포 특성상 고령층이 디지털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테일한 부분을 고려했다”며 “어르신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지만, 한두 번 직접 하시다 보면 쉽게 적응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시니어 고객들을 위한 특화점포는 다른 시중은행에도 존재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시니어 특화점포를 운영하는 은행은 신한은행(6곳), KB국민은행(5곳), 우리은행(3곳), 하나은행(3곳) 등이다. 이은희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실버세대가 주 소비층으로 부상하며 이들을 공략하겠다는 금융권의 전략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글·사진 정상원 기자 jsw@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정과 신뢰의 선거 실현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회의원선거는 국가 운영의 토대가 되는 법률을 만들고, 정부의 정책 집행을 감시하는 동시에 나라 살림을 심의하고 의결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대표를 잘 선택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정책선거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후보자는 허위사실과 비방 등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공격보다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으로 정당당당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유권자는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확인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언론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시오.

유권자 여러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유권자의 의사가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그 결과에 오롯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여 투·개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절차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의 공정도 중요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수수나 매수, 허위 사실공포 등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선거 범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선거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므로 모든 공직자는 중립의 자세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치열한 대결의 장입니다. 동시에 승복과 포용으로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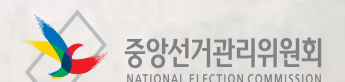
정당·후보자는 유권자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권자는 당선자에게 축하의 박수를, 낙선한 후보자에게 격려를 보내 주십시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 관리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극단의 정치대결을 넘어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태악



〈4인 가구 연간 경감액〉

전기료 8000원·항공료 4000원... 국민 부담 2조 줄인다

‘숨은 세금’ 32개 부담금 손질

분양가 0.8% 학교부담금 폐지
여권 발급도 3000원 저렴해져
영세업자 경유차 부담금 50% ↓
존속 기한은 10년 이내로 설정

영화관람료에 붙는 3% 상당의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되고,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이 인하된다. 분양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없어지고, 경유차를 소유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환경개선부담금 50% 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사업자에게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 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정부는 91개 부담금 중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32개 부담금을 폐지 또는 감면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한다. 이는 정비 대상 부담금 9조6000억 원의 20% 수준이다.

우선 국민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폐지·감면 시 요율 인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요금에 포함돼 달이 내야 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포인트(p) 낮춘다. 이에 따라 현 3.7%인 부담금 요율이 7월부터 3.2%로, 내년 7월엔 2.7%로 낮아진다. 일반 가정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8000원의 전기료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영화관람료의 3%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권 입장권 부과금은 전면 폐지된다.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은 “해당 부담금은 1만4000~1만5000원인 영화관람료의 3%로 420~450원 정도가 해당한다”며 “부담금 폐지가 영화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영권과 협의해 (가격 인하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항공 요금에 포함된 출국 납부금은 기존 1만1000원에서 4000원 인하된다. 면제 대상은 현재 2세에서 12세까지 확대된다. 여권 발급 시 내야 하는 국제교류 기여금의 경우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되

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경우 면제된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부담금은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경감된다.

기업 등 민간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11개 부담금도 폐지·감면하기로 했다. 건설 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분양 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한다.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던 부담금(개발 이익의 20% 또는 25%)은 올해 한시적으로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전액 감면된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선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50% 인하한다. 폐기물처리 부담금을 내야 하는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기존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모든 부담금의 존속 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6개 부담금에만 존속 기한이 있는데, 이를 모든 부담금으로 확대하고 기한도 10년 이내로 설정한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체감도 큰 7개 부담금 완화

부담금 종류	정비 방안
산업부 전력산업기반기금	단계적 요율 인하, 4인 가구 연 8000원 경감
외교·문체부 출국납부금	납부액: 1만1000~7000원, 면제: 2~12세 미만 확대
문체부 영화 입장권	폐지
외교부 국제교류기여금	복수여권 발급 시 3000원 인하
산업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부과금	1년 한시 LNG 부담금 30% 수준 인하
국토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3년 한시 부과율 50% 인하
해수부 수산자원조성금	폐지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행복주택은 10년까지 거주

규제 263건 한시적 유예

승용차 구입 후 최초 검사 4→5년
가족이 장애인 직접 돌봄엔 지원금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쉬워져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이 완화되고 자동차 최초 검사 주기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행복주택 거주 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가족 돌봄 시장 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8년 만에 추진된다.

정부는 1월부터 경제단체·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와 그동안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투자·창업 촉진 △생활 규제 혁신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경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 263건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규정을 120m에서 150m로 완화한다. 지난해 3월 용적을 완화(390%→490%)에 이은 추가 규제완화다. 이에 따라 3복층 증축·확장이 가능해져 반도체 생산시설 확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는 4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자동차 제조·정비 기술이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차 등록 후에 4년 있다가 받아야 하는 최초 검사는 26년간 그대로였다. 또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이 허용된다. 현재는 가족 외 활동지원사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최종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 대상 가족이 직접 돌봄 시에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가족의 돌봄 어려움 해소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청년·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은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14년)으로 연장해 주거 안정을 강화한다. 농어촌도로의 경우 소상공인 운영 영업장 통행을 위한 점용료는 10%에서 50%로 감면을 확대해주고 토지 점용허가 시 민간사업자 대상 하천 점용료는 25% 감면한다. 매년 3시간 받아야 하는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6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하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확대된다. 현재는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2000㎡, 점포 30개 이상)을 지자체가 변경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율시행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고용 규제도 합리화해 사업장에서 1년 내 이탈이 발생하면 해당 인원만큼 비자발급을 제한했으나 사업주가 소재 불명을 신고하면 이를 면제한다.

재계는 부담금 감면방안에 대해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1961년 제도 도입 후 63년 만에 정부가 발표한 부담금 제도 전면 개편안을 경제계는 적극 환영한다”면서 “특히 정부 부처별로 재정 운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의 건의를 수용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Your True ESG Partner

세상에 행복을 **가** 놓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의료보건=안보’ 국가재정 투입… 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정부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 추진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을 예산안 편성 지침상 '재정 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 기능으로 보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내년부터 전공의 수련 우선 투자 의료사고 보상재원 늘려 한도 상향 지역·필수의료 전폭적 재정 지원 상태유 "새롭고 과감한 투자 필요"

우 개선을 통해 전문의를 양성하고,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우선순위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대 정원 이 대폭 늘어난 지역 거점대학에 대해서는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하고, 어린이 병원이나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을 확충하고, 거점병원 등 대학병원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헬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형 보건 의료 R&D에 대한 예산 지원도 추진한다.

의료사고 안전망을 위해서는 전공의의 책임보험·공제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분만 외 다른 필수 의료 분야까지 확대한다. 박 차관은 "지역의 거점병원과 강소병원을 육성·지원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과 지역의 의료 기관 간 연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투자하겠다"며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사후보상 확대 등 새로운 보상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정책 투자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의료계에 제안한다"며 "정부는 무너져가는 지역·필수医료를 살리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도 이날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무너진 지역·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를 진행 중으로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라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했으며, 이 지침에 처음으로 정부가 필수 의료 지원을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포함시켰다"며 "이는 의료 개혁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정대환 기자 vishalist@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사이 최소 5000여 명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상급종합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번 의사 집단행동을 계기로 PA 간호사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2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수술실 인근에서 한 의료 관계자가 인큐베이터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 치킨게임'에 피로감... 등 터지는 병원 근로자들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사 간 대립이 장기화하며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인력의 소진도 심화하고 있다. 전공의 사직 이후 병원에 남겨진 인력들은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며 의사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제42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당선돼 강대강 대치가 더 심화할 것이라 의견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병원가는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사직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수들은 2월 전공의 이탈 이후 1개월간 병원을 지켜왔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안 확정에 집단사직 등 행동을 본격화했다.

이날까지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 서울 소재 '빅5'로 꼽히는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동참했다. 또 부산대, 인제대, 충북대 등 비수도권 의대에서도 사직 행렬이 이어졌다.

의사 이외의 보건·의료 인력은 체력과 정신이 모두 소진된 상태다. 의사들이 떠나자 과도한 업무를 맡아서다. 젊은간호사회는 최근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게시물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

전공의 이어 교수 출사직 혼란 '가중' 간호사 등 "업무 과부하" 복귀 촉구 교수 근무축소에 병원 운영도 타격 임현택 새 의협 회장 "정원 감축해야"

시하고 "환자 버리고 떠난 의사, 간호사들에게 남의 일까지 하라는 정부, 간호사들 죽어나는데, 갑자기 의료개혁 지지한다는 간협(대한간호협회), 병원장 눈치 보며 간호사 보호 안 하는 간호부"라며 "우리 좀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교수들은 사직서 수리 전까지 병원을 지킨다는 입장이지만, 기존보다 근무를 줄이기로 해 병원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39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과대학교수협의회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다음 달 1일부터 외래 진료 최소화를 예고했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노조)은 전날 입장문에서 "고도의 전문성·숙련성·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가 파행 운영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는 언제 어떤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지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자.

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와 의료계 간 대치와 의료공백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전공의 면허정지 유연 대처 등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의대교수들은 대화 전제 조건으로 2000명 증원 철회를 내세워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날 제42대 의협회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 임현택 후보가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65.43%)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 임 당선자는 선거공약으로 △의사면허취소법 개정 △CCTV설치법 개정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의사 대행 금지 등을 제시했다.

임 당선인은 2016년부터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으로 활동하며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고, 저출생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해 (의대 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당선 확정 후 그는 대화 전제 조건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파면,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취소가 기본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정부와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성주 기자 hsj@

노상우 기자 nswreal@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 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포함됐다"며 중점 투자 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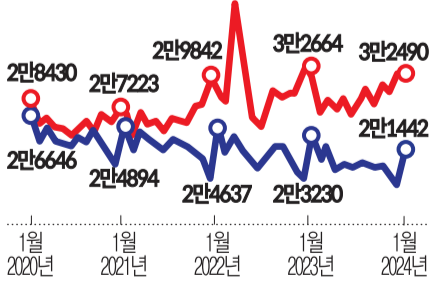
5대 핵심 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재정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이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전공의 수련의 경우 수련 내실화와 처

1월 인구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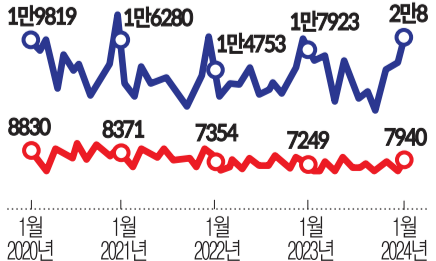
출생·사망 (단위: 명)

● 출생아 수 ● 사망자 수



혼인·이혼 (단위: 건)

● 혼인 건수 ● 이혼 건수



1월 아기 울음소리 '역대 최저'지만 '결혼행진곡' 늘었다

(2만1442명)

통계청 '1월 인구동향'

올해 첫달 태어난 아기가 2만1000명대에 그치며 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상 1월은 아기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 달이지만, 감소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출생아 수는 2만 명대 초반까지 내려섰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태어난 아기는 2만1442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달보다 1788명(7.7%) 감소했다. 동월 기준으로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역대 최저다.

다만 월별 출생아 수가 2만 명대를 회복

한 건 작년 3월(2만1218명) 이후 10개월 만이다.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5.0명)도 1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시·도별로는 대전, 충북을 제외한 서울, 부산 등 15개 시·도의 출생아 수가 감소했다.

결혼은 1년 전보다 2085건(11.6%) 늘어난 2만8천 건이 됐다. 1월 이혼 건수는 7940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691건(9.5%) 증가했다. 1월 기준 이혼 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선 건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월 단위로 보면 2020년 12월 이후 37

출생아 10개월만에 2만명대 회복 혼인 37개월만에 2만건으로 '홀쩍' 51개월째 자연감소 '인구절벽' 심화

개월 만에 2만 건대에 재진입했다.

혼인 건수는 실제 혼인일이 아닌 신고일 기준으로 집계돼 출생아 수와 비교해 계절성이 뚜렷하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하절기 감소했다가 동절기 증가하는 흐름을 보인다. 그럼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이후에는 계절과 무관하게 월별 혼인 건수가 1만 건대에 머물렀다. 다만

통계청 관계자는 "1월 혼인 건수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신고일수가 늘어난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도 전년 동월보다 늘어난 것은 좋았는데, 증가 폭이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1월 사망자 수는 3만249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174명(0.5%)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지난 1월 인구는 1만1047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51개월째 줄고 있다. 자연감소 폭은 1만 명을 넘어서 역대 1월 중 가장 컸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세종=김지영 기자 jye@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못살겠다, 심판하자”



51.7cm... 역대 최장 비례대표 투표용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4일 앞둔 27일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이 비례대표 모의 투표용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역대 가장 긴 51.7cm에 달하는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를 받는다. 연합뉴스

여야, 13일간 선거운동 열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28일 시작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강력한 방역 조치로 비교적 조용하게 치른 4년 전 총선과 달리 여야는 자체 응원곡·구호를 적극 가동하며 내달 9일까지 13일 동안 당 조직력을 총동원한 유세전에 돌입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총선이 3년 차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 강화·경제 여부와 맞물린 만큼 사활을 걸고 유세에 임할 계획이다. 압도적 여소야대를 뒤집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입법을 뒷받침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거야(巨野) 심판’을, 과반 의석에도 역점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줄줄이 막히고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고를 정부 실정 탓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메인 슬로건으로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합니다’를, 민주당은 ‘못살겠다 심판하자’로 각각 정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일하고 싶습니다’라는 구호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반대

국힘,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강조
민주당, 고물가 등 경제 실정 비판

현수막·문자·SNS 선거운동 가능
확성장치 사용 오전 7시~오후 9시

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정부여당의 역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적극 실어달라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자유당 정부 시절 민주당이 1956년 대선에서 내건 ‘못살겠다 살아보자’를 내세웠다. 총체적 경제난을 부각해 정권 심판론을 최대한 모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28일부터는 후보들의 유세차량이 거리에 등장해 전국 각 지역을 누비게 된다. 각 당 후보자 등은 공개 장소 연설·대담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확성장치는 오후 9시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홍보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걸고 신문 등에 광고하거나 방송연설을 할 수도 있으며, 선거운동정보를 문자·음성·동영상 등으로 전송할 수 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

하는 글도 게시할 수 있게 된다. 유튜브에 특정 후보 관련 선거운동 영상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국 거리에 각 당 구호와 응원곡, 대중가요를 개사한 선거 로고송 등이 울려 퍼지면서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다시 국민의힘 우리 함께 승리하자’ 등의 가사로 이뤄진 ‘국민의힘 응원가’를 제작했다. 미스터트롯 출신 김호중의 ‘너나나나’, 이이경의 ‘칼퇴근’을 개사한 2곡도 포함됐다. ‘너나나나 국민의힘’, ‘퇴근퇴근하고 싶어요, 2번 2번 너무 좋아요’ 등 당명과 기호(2번)를 강조한 가사를 담았다.

민주당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유명해진 노래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개사한 ‘정권심판송’과 함께 ‘5대비전송’, ‘더더더송’ 등을 공통 선거송으로 정했다. ‘정권심판송’은 당의 총선 슬로건과 직결되며, ‘5대비전송’은 출산율 1% 회복·물가상승률 2%·경제성장률 3%·혁신성장 4대 강국·코스피 5000 시대 등 민주당이 앞서 발표한 ‘5대 국가비전’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 밖에 각 지역 후보가 자체 제작한 선거송도 거리를 수놓을 전망이다.

정호영 기자 moonrise@·이난희 기자 nancho0907@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 韓, 여의도정치 종식 선언

“의사당 부지, 서울 랜드마크로
동료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뀌어 동료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터 세종으로 이전하지는 것으로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며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의도 국회 용지 활용 방안에 대해선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의 새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며 “예를 들어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 런던 테이트 모던 등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맘껏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강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 문화의거리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 여의도공원을 연계해 공연장, 교육시설, 체육시설을 포함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여의도 정치 문법에 막혀서 한 번도 실현된 적 없었다”며 “국민의힘은 정치개혁의 상징적 완성이므로써 여의도 정치의 끝,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한다.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총선 후 당권을 유지해야 공약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나”고 묻자 “인생 앞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난희 기자 nancho0907@

“파탄 난 민생 다시 살릴 것” 李 ‘힘지’ 충북서 지원유세

출생소득·기본주택·무상교육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을 하루 앞둔 27일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꼽히는 충북 일대를 찾아 윤석열 정권 심판을 강조하며 자당 후보를 적극 지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북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민주당의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 합동으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주권자를 대리하는 정부는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 미래 개척에 온 힘을 쏟을 의무가 있다”며 “이런 책무를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배반하는 권력은 국민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은 윤석열 정권에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줘야”면서 “하지만 돌아온 것은 민생경제 몰락, 민주주의 파괴, 미래 실종, 평화 위기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권 심판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파탄 난 민생을 다시 살리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충주 시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 주권자, 당당한 주인으로서 대리인들의 행위에 대해 잘한 것은 명확하게 상을 주고 못한 것은 엄정하게 벌을 줘서 모든 정치 세력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충주는 현역 이종배 국민의힘 후보가 내리 3선(19~21대)을 해 민주당에선 힘지로 분류되는 지역이다. 이종배 후보의 21대 득표율은 52.22%로, 당시 김경욱 민주당 후보(44.91%)를 약 7%포인트 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충북 제천시 동문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하트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 승리했다. 이번 총선에서 재대결이 성사됐다. 김경욱 후보는 “충주는 흔히들 보수의 성지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바다 민심이 변하고 있다. 반드시 새로운 물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출생소득 △기본주택 △무상교육 △간병지원 △경로점심 등 ‘기본사회 5대 정책’도 발표했다. 해당 정책에는 ‘1억 기본대출’을 골자로 하는 결혼출산지원금, 국립대전문대 무상교육, 생애주기 고려 주거복합플랫폼 100만 호 공급,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게 장기요양보험으로 간병비 지원, 주5일 경로당 점심 지원(단계적 주말 식사바우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호영 기자 moonrise@

고위공직자 재산 평균 19억... 尹대통령 2.2억 ↓

지난해보다 평균 4735만원 줄어

고위공직자 1975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9억101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신고액과 비교하면 평균 4735만원 줄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소속 정

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의 재산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PETI)과 관보에 공개했다. 대상은 중앙부처 778명, 지방자치단체 1197명이다. 재산공개대상자 중 50.5%인 997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줄었고, 나머지 978명은 재산이 늘었다.

재산 규모별로 보면 20억 원 이상이 592명(3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억~20억 원 570명(28.9%), 5억~10억 원 370명(18.7%), 1억~5억 원 366명(18.5%), 1억 원 미만 77명(3.9%) 순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 74억8000만 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평가액 변동 등에 따라 지난해 신고된 재산(76억9700만 원)보다 약 2억1600만 원 감소했다. 윤 대통령 신고 재산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택을 비롯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명의 부동산

과 예금이 대부분이었다. 윤 대통령 본인 명의 재산은 은행예금 약 6억3000만 원이었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총액 1위는 494억5000만 원을 신고한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었다. 지난해 전체 1위였던 조성명 강남구청장(489억 원)이 2위를 기록했으며, 변필건 대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438억8000만 원), 김동조 대통령실 비서관(329억3000만 원),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원(259억70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정대한 기자 vishalist@

“첨단산업 R&D 예산 10% ↑ … 특화단지 국비 지원 확대”

정부, 국가첨단전략산업 회의

입주기업 인센티브제도 확충 검토
포항·새만금 등 국비 439억 지원
용인 산단공공기관 예타면제 추진
단지별 국비지원건수 제한 폐지
주요국과 기술·인력 협력 노력도
한덕수 “산업 경쟁력 강화 총력”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위원회’ 회의를 열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이같이 의결했다.

지원 방안에는 2047년까지 681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



한덕수(왼쪽 세번째)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중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 내 민간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투자 인

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지속 검토해 나

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종합지원하기 위해 국비·공공기관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용인·평택 특화단지 국비 1000억 원 지원에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 원을 지원하고, 10조 원 이상의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타 조사 면제 사업 등을 추진한다.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건수 제한(2건) 기준을 폐지하고, 투자 규모 및 지역을 기준으로 총사업비 중 국비 지원 비율을 최대 10%포인트(p)까지 상향하는 등 국비 지원 기준도 마련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방안도 실행한다. 정부는 작년 5월에 발표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24년 실행계획’을 함께 내놨다.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의 올해 R&D 예산은 1조1011억 원으로 전년(9976억 원) 대비 10.4% 확대

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첨단산업 수출 18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금융·인증·마케팅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주요국과의 첨단 기술·인력 동맹 및 협력도 강화한다.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 및 대학원 지원도 확대한다. 작년에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교를 선정해 261명의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에 착수했고, 8개 특성화대학 사업단(12개교)을 선정해 865명의 학사급 전문인력양성을 시작했다. 산업부는 다음달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를 추가로 선정하고 이차전지 3개, 디스플레이 1개, 바이오 1개 등 신규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한다.

교육부는 6월에 반도체 특성화대학 10개 사업단을 추가 선정하고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3개 사업단을 신규로 확정한다.

바이오 특화단지는 지난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확정된 계획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공모했다. 그 결과 광역지자체에서 11건(인천, 수원, 고양, 성남, 시흥, 충북, 대전, 강원, 경북, 전남, 전북)의 지정 신청이 접수됐다. 바이오 특화단지는 지자체 신청에 대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 평가·검토를 거쳐 올 상반기 내 최종 결정된다.

한 총리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반 시설 구축 시 국비 지원 비율을 5~10%p 높이고, 단지별 2건으로 제한했던 건수 기준도 폐지한다”면서 “특화단지 인근 지자체도 기반 시설 구축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협력 기반 조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고 말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저력 있는 피부
빛나는 자신감**
아이오펜 슈퍼바이탈 크림

하루 아침에 달라지는 내 피부의 힘을 직접 체험해보세요!

IOPE

구매 문의 | 080-029-5454 판매처 | 전국 마티디올 매장 및 마트 *제품 사용 1일 후 설문 조사 결과

가스안전공사 “수소차 경쟁력 UP” 수소제품시험평가센터 문 열어

국내서 부품 KS인증 가능해져
국내 기업 애로사항 해소 기대

국내 수소제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부품에 대한 시험 업무를 수행할 평가센터가 문을 열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7일 충북 음성군 성본 산업단지에서 수소제품시험평가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 박찬기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조병욱 음성군수, 최서호 현대자동차 상무 등이 참석했다. 센터는 사무동, 수소시험동, 부품시험동으로 구성됐다.

수소시험동은 수소상용차 내압용기

시험업무를, 부품시험동은 수소충전소 부품에 대한 KS 인증을 위한 시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수소시험동에는 국내 최초로 대형 수소상용차 내압용기(175리터급)에 대한 수소가스반복가압 시험, 투과성 시험 장비 등을 구축한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수소상용차 내압용기를 인증받기 위해 해외시험기관에 의뢰해야 했던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박 사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인 검사와 인증시험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소안전관리 전담 기관으로서 수소서비스 등 상용차와 수소충전소 안전성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의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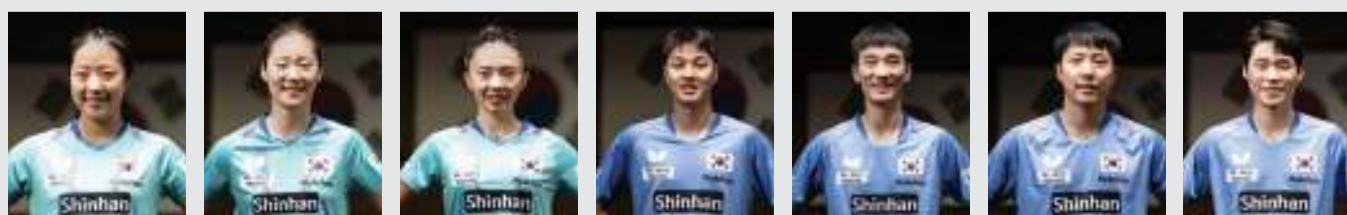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사각의 테이블 위를 수놓을 열정의 땀방울!
지금 은 탁구대표팀 선수들이 만들어낼
역대급 명승부를 직관할 시간!

신한은행 2024 인천 WTT 챔피언스
일시: 2024년 3월 27일~31일
장소: 인스파이어 아레나(인천 영종도)

신한은행 2024 인천 WTT 챔피언스에 출전하는
탁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신유빈

이시은

전지희

안재현

이상수

임종훈

장우진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마이너스 금리 벗어났지만 '엔저 족쇄'... 34년來 최저

일본은행 '완화 유지' 발언에 엔·달러 환율 한때 151.97엔 美 동결 땀 160엔까지 가능성 '일본증시 매수세 더 강해졌다'

미국 달러당 일본 엔화 가치가 34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일본은행(BOJ)이 이달 17년만의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마이너스 금리 체제를 종료했지만, 오히려 엔저 고삐가 풀려버린 형국이다.

27일 니혼케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 151.97엔까지 치솟으면서 이전 고점인 2022년 10월의 151.94엔을 넘어섰다. 이에 엔화 가치는 1990년 7월 이후 3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앞서 일본은행이 19일 금리를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날 때만 해도 엔화 가치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이후 조기 추가 금리 인상은 없

엔·달러 환율 (단위: 엔) ※ 출처: CNBC



을 것이라는 견해가 강해지면서 오히려 엔저를 촉발했다.

이날도 다무라 나오키 일본은행 심의위원이 한 강연에서 "통화정책을 관리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느리고 꾸준한 정상화가 비정상적인 대규모 완화를 끝내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일본은행에서도 가장 '매파' 적 인물로 알려진 다무라 위원

이 이같이 말하자 시장은 출렁거렸다.

게다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도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 출석해 "당분간 완화적인 금융환경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엔저를 부추겼다. 그 결과 금리 인상 전 149엔대에 머물던 환율은 현재 152엔에 육박하고 있다.

다만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이 "정부가 필요하다면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이

라며 구두 개입하면서 엔화 가치의 낙폭은 다소 줄었다. 스즈키 재무상은 전날에도 "급격한 환율 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을 흔드는 투기 세력에 경고했다.

이런 이유로 엔·달러 환율이 더 오르면 머지않아 당국이 시장에 개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직전 개입 시점은 환율이 151.95엔을 기록했던 2022년이다. 당시에도 당국은 "단호한 조치"를 거론하

며 개입했다. 로드리고 카르틸 내셔널오스트레일리아은행 수석 외환전략가는 "최근 기록을 고려할 때 환율 152엔 선 돌파가 개입을 촉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사키 이사오 후쿠오카파이낸셜 수석 투자전략가는 "미국 경제가 계속 견실한 모습을 유지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는다는 견해가 퍼진다면 환율이 160엔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엔저 가속은 일본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다. 이날 일본 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9% 상승한 4만 762.73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증가 기준 사상 최고치인 4만 888선을 웃돌기도 했다.

엔저에 수출 관련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도쿄일렉트론은 1.49% 상승했고 패스트리태일링은 1.23% 올랐다. 닛케이는 "저금리가 계속될 것이라는 시각에서 매수세가 더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small>고대명 기자 kodae0@</sm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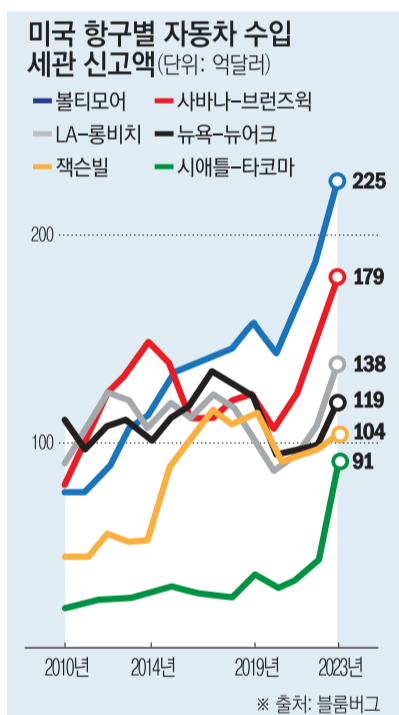
볼티모어항 폐쇄로 공급망 타격... 車업계 '발등의 불'

교량 붕괴 여파 대서양 운송 차질 기계·설탕·석탄 수출입 비상 현대차 물류적체 간접피해 우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구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로 항구와 주요 도로가 폐쇄되면서 최소 몇 주간 중부 대서양 지역의 해상 운송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선박들이 대체 항로를 찾아 떠나면서 혼잡과 물류 지연이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오전 1시 30분경 볼티모어 항만에 있는 '프랜시스 스코트 키(Francis Scott Key)' 다리가 싱가포르 선적 컨테이너선 '달리'와 충돌했다. 다리가 무너지자 메릴랜드주 당국은 항구의 운영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리 위에 있던 건설 노동자 8명 중 2명이 구조됐으며 6명은 사망했다.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 22명 중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볼티모어 항구는 미국과 대서양을 잇는 주요 수출입항이다. 미국에서는 9번째로 큰 항구로, 지난해 5230만 톤(t)의



국제 화물을 처리했다. 금액으로는 808억 달러(약 108조 8295억 원)에 달한다. 농업 및 건설 기계, 설탕, 석탄 수입을 위한 미국 제1의 항구이자 석탄 수출량이 두 번째로 많은 항구이기도 하다. 카리브해와 캐나다, 대서양으로 향하는 크루즈선도 볼티모어 항구를 거친다. 메릴랜드 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파괴된 볼티모어항 교량. 로이터연합뉴스

44만 4000명 이상의 승객이 이 항구에서 출발했다.

볼티모어 항구를 이용하는 닛산, 도요타, 제너럴모터스(GM), 볼보, 폭스바겐 등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포드와 GM 등은 대체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스턴에서 마이애미까지의 병목 현상을 피하기 위해 서부 해안으로의 화물 이동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플렉스포트의 라이언 피터슨 최고경영자(CEO)는 "기업들은 이미 동부 해안에서 서부로 화물을 옮기기 시작했다"며 "볼티모어 항구가 폐쇄되면 동부 해안에 있는 모든 항구에 화물 버퍼가 생겨 혼잡과 지연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구를 통과하는 물동량이 10~20% 증가해도 엄청난 적체와 혼잡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현대차그룹은 볼티모어항을 직접 이용하지는 않아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물류 전체가 혼란에 빠지면 간접적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한동안 물류 혼란이 예상되지만, 국지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무디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운송 비용이 일부 상승하고 교통 체증과 혼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른 항구를 찾으면 되기 때문에 미국 경제 전체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아현 기자 cahyun@

코코아 1만弗 돌파 초콜릿가격 확 뛰다



초콜릿 소비가 많은 부활절 연휴를 앞두고 코코아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톤(t)당 1만 달러를 돌파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국제선물거래소(ICE)에서 5월 인도분 코코아 가격은 장중 한때 톤당 1만 8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다만 이후 가파른 상승세에 대한 부담에 반락하면서 전 거래일 대비 0.28% 내린 962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코코아는 주산지인 코트디부아르, 가나 등 서아프리카 지역의 수확량 급감으로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공급 부족에 직면했다. 이들 지역은 전 세계 코코아 공급량의 75%를 담당하고 있는데, 악천후와 병해로 인해 생산량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코코아 가격은 지난 한 해 동안 3배 이상 폭등했고, 올해에도 두 배 이상 급등했다.

문제는 코코아 가격이 앞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폴 쥘라 보뱅크 원자재 부문 애널리스트는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코코아 시장이 직면한 시스템적 문제에 대한 쉬운 해결책이 없어 당분간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품시장과 소매시장 사이의 시차를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제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초콜릿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 중 하나인 부활절 연휴가 돌아오면서 소비자들의 가격 인상 체감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변호선 기자 hsyun@

애플, 숨겨왔던 AI 전략 밝힌다... AI 앱스토어 공개하나

6월 10일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애플 임원 '민기 힘든 일 될 것'

애플이 6월 10일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WWDC)를 열고 그간 숨겨왔던 인공지능(AI) 전략을 밝힐 예정이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행사에 선 최신 iOS와 아이패드OS, 비전OS 등의 진척 상황을 살필 것"이라며 "새로운 도구와 프레임워크, 여러 특징에 대한 통찰력뿐 아니라 애플 전문가들에 대한 특

특한 접근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사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개발자와 학생들은 애플 파크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보도자료에 AI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주요 외신은 이번 행사를 사실상 AI 전략을 공개하기 위한 자리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행사 기간 있을 프레젠테이션은 AI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새로운 AI 전략은 'iOS 18' 업그레이드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T 전문매체 애플인사이드는 "애플의

AI 전략은 꼭 최고의 AI 앱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AI 앱스토어'를 제공하려는 것일 수 있다"며 "WWDC에서 AI 앱스토어가 발표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WWDC 개최 일정을 공개한 그레고 조스위악 애플 마케팅 임원 역시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민기 힘든 놀라운 일일 것"이라며 AI 관련 계획 공개를 시사했다.

빅테크가 집중하는 AI는 애플에도 중요한 분야다. 애플은 다른 기업들보다 AI 개발에 있어 후발주자로 평가받지만, 오픈AI 효과를 본 마이크로소프트(MS) 등과 경쟁하기 위해 최근 분주히 움직이

고 있다. 이달 중순에는 캐나다 생성형 AI 스타트업 다윈AI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애플이 핵심 시장인 중국에서 극심한 침체를 겪는 만큼 AI 돌파구를 찾는 것이 더 절실하다. 2월 중국 내 아이폰 출하량은 240만 대로, 전년 동월 대비 3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하량은 두 달 연속 감소했다. 1월에는 550만 대를 출하했는데, 이 역시 39% 줄어든 수치다. 애플이 새 iOS 체제에 서둘러 AI 기술을 탑재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고대명 기자 kodae0@

쿠팡, 3조 투자 '전국 무료 로켓배송'... 알리에 대반격

3년간 새 물류센터 8곳 확장
첨단 자동화·배송망 고도화
2027년 전국 로켓배송 가능
알리, 3년간 1조4471억 들여
물류센터·소비자 보호 투자

쿠팡·알리 투자 계획



- 2026년까지 국내 물류에 3조원 투자해 신규 풀필먼트센터 8곳 확장
- 물류센터 첨단 자동화 기술 도입, 배송 네트워크 고도화 방침
- 2027년부터 전국 230여개 시·군·구에서 로켓배송 가능

- 3년 간 한국 시장에 1조4471억원 투자
- 통합물류센터 구축에 2632억원 투입
- 소비자 보호 1000억원, 지식재산권보호에 100억원 투입

※ 출처: 각 사

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알리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알리 역시 한국에 물류센터를 짓는 등 향후 3년간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다.

알리바바그룹은 향후 3년간 한국 시장에 11억 달러(약 1조4471억 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투자금액 중 약 2632억 원은 한국 통합물류센터 구축에 쓰인다. 이어 한국 소비자 보호에 1000억 원,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데 100억 원을 투입한다.

그림의 이런 투자 계획이 드러난 직후 알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객센터 전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 방안을 내놨다. 또한 알리는 이날 한국 상품 전문관 K베뉴(K-Venue)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점사 수수료 면제정책을 6월까지 이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K베뉴에 입점한 한국 기업 및 브랜드 판매 증대를 위해 할인 쿠폰 등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풀기도 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알리)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두고 본격 경쟁에 돌입했다. 알리의 모회사인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한국 시장에 1조5000억 원의 투자를 예고하자, 쿠팡은 알리 투자금의 2배 수준인 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맞붙을 났다.

쿠팡은 2026년까지 3년간 3조 원의 자금을 국내 물류 사업에 투자한다고 27일 밝혔다. 쿠팡의 투자금은 신규 풀필먼트센터(FC) 확장과 첨단 자동화 기술 도입, 배송 네트워크 고도화 등에 쓰일 예정이다. 쿠팡은 2026년까지 경상북도 김

천, 충청북도 제천, 부산, 경기도 이천, 충청남도 천안, 대전, 광주, 울산 등 8곳 이상 지역에 신규 FC 운영을 위한 신규 착공과 설비투자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광주와 대전 FC는 올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어 쿠팡은 올해 2분기 부산과 이천 FC를, 3분기에는 김천 FC를 착공할 예정이다. 이어 4분기에는 충북 제천 FC가 착공에 들어간다. 쿠팡은 8곳 이상의 신규 FC를 지어 전국을 쿠팡의 로켓배송 권역이론바쿠세권으로 만들겠다는 계산

이다. 쿠팡에 따르면 8개의 신규 FC가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2027년부터 230여개 시·군·구에서 로켓배송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올 2월말 기준 5130만 명) 가운데 5000만 명 이상 규모로 추산된다. 사실상 전국에 있는 인구 100%가 무료로 로켓배송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특히 경북 봉화, 전남 고흥·보성, 경북 의성·영양·정송, 경남 합천 등 고령화(65세 이상) 비중이 40%가 넘는 지

역을 비롯해 전남 구례·곡성, 전북 진안·장수·임실·순창, 경북 영양, 대구 군위 등 인구 3만 명이 붐비던 지역들도 로켓배송이 가능해진다. 또 경남 거창·남해·하동, 전남 화순·함평·영광, 충북 괴산·단양, 충남 청양, 강원 철원 등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여러 인구감소지역들에 진출, 국민 쇼핑 편의성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쿠팡이 국내 물류에 대규모 자금 투자를 결정한 건 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한미 모녀도, 형제도 지분과반 확보 못해... 소액주주 표심잡기 '혈투'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통합의 분수령이 될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가 28일 열린다. 송영숙·임주현 모녀측과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 모두 과반의 우호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측은 남은 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 우호지분은 42.66%,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 우호지분은 40.57%로 모녀 측이 2.09%포인트 우세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모녀 측은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까지 더해 35.0%였으나, 전날 국민연금공단이 한미사이언스 측이 추천한 이사진 6명을 전원 찬성하면서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놓였다. 형제 측에는 고(故) 임성기 회장 고향 후배이자 개인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지

한미사이언스 오늘 주총

한미약품·OCI그룹 통합 분수령

모녀 42.66% vs 형제 40.57%

임주현 "주주친화 정책 펼칠 것"

형제 "순익 1조·시총 200조 달성"

분 12.15%가 포함됐다.

양측의 우호지분이 과반을 넘기지 못했던 점에서 주총 표 대결의 칼자루는 남은 기관과 소액주주들에게 넘어왔다. 양 측은 주주 가치 제고를 강조하면서 이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날 "통합 이후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주주친화 정책을 실행할 것"이라며 "주주 가치 제고를 경영의 제1원칙으로 삼고, 주주친화 정책을

한미사이언스 지분 구조

(단위: %)

형태	측 우호지분	모녀 측 우호지분	
임종윤	9.91	송영숙	11.66
임종윤 직계	4.31	임주현	10.20
임종훈	10.56	진인적	5.24
임종훈 직계	3.23	가현문화재단	4.90
신동국	12.15	임성기재단	3.00
DXVX	0.41	국민연금	7.66
합계	40.57	합계	42.66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적극적·공격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가 제시한 주주 가치 제고 방안은 △중간배당 도입을 통한 주주 수익성 제고(단기) △당기순이익의 50%를 주주친화정책 재원으로 활용해 배당·자사주매입·무상증자(중장기) △주식기존보상제도 도입 등 책임 경영 강화(중기) 등이다.

이날 그룹 경영 총괄 부회장으로 승진한 임주현 부회장은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가 많다 보니 적극적 주주친화 정책을 펴지 못했다"며 "신약개발을 투자를 도와줄 든든한 파트너를 구한 만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적극적 주주친화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위탁개발(CDO)·임상수탁(CRO)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다. 또 100개의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해 한미약품을 5년 안에 순이익 1조 원 회사로 만들고 시가총액을 200조 원 규모로 불리겠다 성장 계획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1조 원 이상의 투자도 끌어들이겠다고 약속했다.

두 형제는 이날 '주주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법원의 결정 이후 한미사이언스 주가가 급락했다는 것은 현 이사진의 결정에 대한 주주들과 시장의 평가가 어

떤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는 소액주주들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신동국 회장도 "지난 한미 50년을 바라봐온 결과 지금 같은 입장을 낼 수밖에 없었음을 주주분들이 더욱 잘 알 것"이라며 "저를 포함한 개인주주들이 외면받지 않는 선례를 남기고 싶다. 소액주주들도 제 판단을 믿고 확신을 갖고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은 올해 1월 OCI홀딩스가 7703억 원을 들여 한미사이언스 지분 27.0%를 취득하고, 임주현 부회장 등이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하는 통합을 결정했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임주현 사장과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을 포함한 6명,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자신들을 포함한 5명의 이사 후보를 주총 각각 안건으로 올렸다.

유혜은 기자 euna@

손정의 2000억 베팅한 스타트업 '뤼이드' 수백억 적자

(소프트뱅크 회장)

AI 토의 솔루션 '산타' 성장 한계
5년 동안 누적 영업손실 1164억



용, IMM인베스트먼트, DSC인베스트먼트 등 국내 내로리하는 벤처캐피털(VC)의 투자자이자 어졌다. 손 회장의 투자를 계기로 '제2의 쿠팡'으로 불리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뤼이드는 손 회장의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 사업으로 확장을 도모했으나 적자가 이어졌다. 뤼이드의 매출은 2019~2022년 50억 원 전후로 횡보했고 이 기간 영업손실 규모는 85억 원에서 139억 원, 249억 원, 421억 원으로 급격히 커졌다.

뤼이드의 매출 대부분이 AI 토의 교육 솔루션인 산타 토의에서 나오는데 토의 시장의 성장 한계에 실적이 부진했다는 분석이다. 작년 매출이 53%가량 신장했다고는 하나 금액으로는 27억 원가량에 그

친다. 아울러 작년 수백억 원대 적자 지속으로 최근 5년 간 누적 영업손실은 1164억 원, 순손실은 1479억 원에 달하며 작년 말 기준 결손금은 1546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뤼이드의 손실 규모가 줄어든 배경으로는 매출이 소폭 늘어난 것도 있으나 판관비를 크게 줄인 영향이 크다. 작년 급여와 지급수수료, 광고비 등에서 20~50%가량 비용을 아꼈다. 급여는 133억 원에서 103억 원으로, 지급수수료는 131억 원에서 65억 원, 광고비는 103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축소했다. 직원 수는 2021~2023년 3년간 158→141→119명으로 줄었다.

뤼이드가 야심 차게 진행한 미국 진출도 성장 한계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현지 법인 뤼이드랩스는 최근 3년간 매출이 13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줄었고 작년에는 매출이 전무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SK이노, 부품 유해물질 시험 104개 국가서 인정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이 전기·전자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소재 등의 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시험하는 국제공인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계열사들이 생산·판매하는 관련 제품의 무해성을 직접 시험할 수 있게 됐다. 시험 결과는 세계 104개 국가에서 효력을 인정받는다.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27일 밝혔다.

RoHS는 유럽연합(EU)이 2006년 전기·전자 제품에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한 국제 표준 지침이다.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은 10개 유해물질 관련 14개 규격

에 대한 공인시험 자격을 획득했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사 및 부품 회사들은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RoHS 준수 기준을 증명받아 제품의 무해성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하고 있다. KOLAS가 지정한 국제공인기관의 RoHS 시험 결과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에 가입한 104개 국가에서 인정된다. 국내에서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을 수출할 때도 국제적으로 동등한 효력과 공신력을 가진다.

이번 인증으로 SK지오센트릭, SK온, 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이 추진하는 플라스틱 리사이클, 첨단소재, 분리막(LiBS) 등 고부가화학소재와 차세대 재활용 제품들을 비롯한 SK이노베이션 계열 제품들의 안전성을 한층 높이고,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발맞춰 차별화된 품질 경쟁력을 지켜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삼성, AI 시대 이끈다... 차세대 메모리 CXL·HBM 공개

국제 반도체 학회 '멤콘 2024'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을 공개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26-27일(현지시간) 열리는 국제 반도체 학회 '멤콘(MemCon) 2024'에서 AI 시대를 이끌어갈 '컴퓨터익스프레스링크(CXL)' 기술 기반 메모리와 고성능·고용량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선보였다.

멤콘은 AI 관련 메모리 솔루션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 개최된 학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AMD 등이 참가했다.

이날 최진혁 삼성전자 미주 메모리연구소장(부사장)과 황상준 D램 개발실장(부사장)은 'AI 시대의 HBM 및 CXL 메모리 혁신 주도'를 주제로 한 기조 연설

최진혁 부사장 기조연설 통해

"CXL, 시스템 효율·안전성 높여 메모리 용량·대역폭 대폭 향상" CMM-D·CMM-H 등 대거 선보여 황상준 부사장 "HBM기술 주도"

을 통해 "이들 솔루션이 업계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며 "메모리 용량 측면에서는 CXL 기술이, 대역폭 측면에서는 HBM이 미래 AI 시대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XL은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메모리 반도체를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와 용량을 높이는 차세대 기술이다. 생성형 AI로 데이터양이 많이 증가하면서 차세대 메모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AI 시대 핵심 부품인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최진혁 삼성전자 미주 메모리연구소장 부사장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컴퓨터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국제 반도체 학회 '멤콘(MemCon) 2024'에서 'AI 시대의 HBM 및 CXL 메모리 혁신 주도'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고성능 메모리다.

최진혁 부사장은 "CXL은 메모리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 삼성전자만의 다양한 CXL 기반 솔루션을 통해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을 대거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CMM-D(D램), 낸드와 D램을 함께 사용하는 CMM-H(하이브리드) 등 CXL 기반 솔루션을 대거 선보였다.

이날 삼성전자는 HBM 기술력에 대한 소개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황상준 부사장은 "양산 중인 3세대(HBM2E)와 4세

대(HBM3)에 이어 12단 5세대 HBM3E와 32기가비트(Gb) 기반 128기가비트(GB) DDR5 제품을 상반기에 양산해 AI 시대 고성능 고용량 메모리 리더십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6세대(HBM4) 제품부터 수직으로 쌓인 가장 아래층에서 각종 데이터를 종합하는 '버퍼다이(Buffer Die)'에 선단(최첨단) 공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곳의 선품을 줄이면 HBM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범용제품이 아닌 고객사 맞춤형 제품을 만들겠다는 게 삼성의 전략이다.

앞서 20일 경제현 삼성전자 사장은 제5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HBM에서 한발 늦었다'는 주주들의 지적에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잘 준비할 것"이라며 "또 CXL과 프로세스 인 메모리(PIM)은 다양한 고객과 협의해 실제 적용 등을 진행하고 있고, 곧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韓경제 봄마중 나선 재계

현대차그룹 "전동화·SDV 중심 모빌리티 주도"

AAM 등 분야에 투자·채용 초점 19.8만명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현대차그룹이 향후 3년 간 국내에서 8만 명을 직접 채용하고, 68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건 글로벌 모빌리티 퍼스트무버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정의선 회장의 통큰 결단이다.

특히 현대차는 국내 시장에 투자와 채용을 집중했다. 국내 경기 활성화 기여는 물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미래 사업 경쟁력을 확대하겠다는 정 회장의 의지가 읽힌다.

현대차그룹이 27일 발표한 투자·채용 계획은 전동화,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자율주행 등 핵심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채용은 전동화·SDV 가속화 등 미래 신사업 분야

현대차그룹 사업 부문별 투자 비중 (단위: 원)

구분	투자 규모	비중
완성차 (현대차/기아)	42조 8000억	63%
기타 사업군	25조 2000억	37%

에 집중된다. 전체 8만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4만4000명이 신사업 분야에서 채용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이 앞으로 3년 간 국내에 투자할 68조 원 가운데 31조1000억 원은 연구개발(R&D) 투자에 집중됐다. 이어 경상투자 35조3000억 원, 전략투자 1조6000억 원을 각각 집행한다.

눈에 띄는 분야는 R&D와 전략투자다. R&D 분야에서는 제품 경쟁력 향상은 물론 전동화와 SDV, 배터리 기술 내재화 체계 구축이 포함된다.

현대차그룹은 채용과 마찬가지로

EV 전용공장 건설에 대규모 투자를 순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전략투자는 모빌리티와 소프트웨어(SW), 자율주행 등 핵심 미래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 등에 활용된다.

산업군별로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포함한 완성차 부문이 전체 투자액의 약 63%인 42조8000억 원을 차지한다. 전동화와 SDV 가속화, 수소 생태계 구축, AAM, 로보틱스 등에 투자된다.

또 차세대 연료전지 시스템 및 수소 버스·트럭 개발, 수소 충전소 구축 등에도 속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및 채용도 예고됐다. GBC 설계변경안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면 GBC 프로젝트에서만 2026년까지 약 4조6000억 원 투자 및 9200명의 신규 고용이 이뤄진다.

송영록 기자 syr@



주형환(오른쪽 세 번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동근(두 번째) 한국경제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7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 출범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저출산 대책 마련' 머리 맞댄 민관

경제6단체·저고위·관계부처 등 '저출산 대응 위한 협의체' 발족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체가 출범했다.

한국경제자총협회(경총)은 27일 경제단체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협의체)를 구성해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계와 정부의 협업체계 구축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다.

협의체는 이동근 경총상근부회장과 최슬기 위원회 상임위원을 공동단장으로, 경제단체 본부장, 관계부처 실·국장 등이 참여하는 본 협의체와 함께 실무협의체를 두고 운영된다.

저출산 대책 중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에 관한 기업의 실태와 애로를 파악하고, 제도 활용도 제고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건의, 제도 개선에 관해 지속 논의한다. 앞으로 전체회의를 매월 개최하며 사업별 진행 상황을 공유한다. 또 민관 협업·조율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해 정책화해 나갈 계획이다.

울해는 기업별 일·가정 양립과 양육부담 완화 제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기업 가족 친화제도 운영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홍보할 예정이다.

경제단체·위원회·지자체가 함께 지역

별 순회 간담회를 개최해 조만간 발표될 저출산 대책과 동 매뉴얼을 홍보하고, 지방 소재 기업의 의견을 수렴한다.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포럼 및 공동연구, 경진대회 등을 개최한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우리 기업들은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파격적인 출산지원금 지급이나 자녀 직원 승진 우대 등 자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잘 하고 있는 기업에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해야 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 확보나 유연근무제 도입 등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경제단체가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에 관한 주요 파트너로서 고용부, 복지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로 소통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육아휴직, 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가족친화제도뿐만 아니라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데 경제단체와 정부가 힘을 모으고자"고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저출산 추세의 반전과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해 지자체, 언론, 종교, 학계, 금융계 등 여러 사회주체들과 전사회적·다각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LG "ABC 분야 고도화해 첨단기술 메카 육성"

인공지능·바이오·클린테크서 배터리·전장부품·디스플레이 고객가치 관점에서 경쟁력 강화

LG그룹이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고객가치 관점에서 과감한 투자와 혁신으로 미래 준비에 속도를 낸다. 특히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 우리나라를 첨단 기술의 메카로 만들 계획이다.

LG그룹이 27일 발표한 중장기 투자 계획을 보면, 2028년까지 5년간 약 100조 원을 국내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같은 기간 LG의 글로벌 총 투자 규모의 65%에 해당하는 투자금액이다.

이처럼 총 투자액의 상당한 비중을 국내에 투자하는 것은 한국을 LG그룹의 최첨단 고부가 제품 생산기지 및 첨단

기술의 연구개발(R&D) 메카로 키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LG는 이번에 발표한 국내 투자재원의 약 55%인 55조 원을 R&D에 투입해 국내를 핵심 소재 연구개발과 스마트 팩토리 등 제조 핵심기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LG는 국내 투자 재원의 절반인 50조 원 이상을 인공지능(AI), 바이오, 클린테크와 같은 미래 기술 분야와 배터리, 자동차 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미래성장 분야에 투자할 방침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2018년 취임 이후 ABC 분야를 중심으로 그룹 전반의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LG는 기존 주력사업인 생활가전,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분야 등에도 투자해 시장 리더십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LG 관계자는 "10년·20년 후를 내다보는 미래성장동력인 AI, 바이오, 클린테크의 핵심은 기술"이라며 "한국에서 미래성장동력 분야 최첨단 고부가 제품 생산기지, 첨단 기술의 연구개발 메카를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대규모 국내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회장은 이날 서면 영입보고서를 통해 "고객과 시장이 요구하는 핵심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해 주력 사업화하고, 미래 사업은 AI, 바이오, 청정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미래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키워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이준석

임성재

황증곤

정찬민

이수민

박상현

조우영

서요섭

2024 KPGA
우리금융 챔피언십 페럼클럽
04. 25 (목) - 04. 28 (일)

SBS Golf 2 생중계 채널번호 안내

GENIE TV 62	Btv 972	U+tv 99	skylife 219
----------------	------------	------------	----------------



우리금융챔피언십
티켓 이벤트 바로가기

주최 | 우리금융그룹

주관 | KPGA 한국프로골프투어
KOREA PROFESSIONAL GOLF TOUR

방송 | SBS Golf 2

이통3사 모두 '3만원대 5G'... "데이터양 너무 짜" 불만도

KT에 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3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가계통신비를 낮추려는 정부의 연이은 압박에 이동통신 3사 모두 대안 제시에 여념 없는 모습이다.

SKT는 월 3만9000원에 6GB를 제공하는 '컴팩트' 요금제를 27일 출시했다. 월 4만5000원에 8GB를 제공하는 SKT 컴팩트플러스도 선보인다. 해당 요금제 이용 고객은 데이터를 다 사용한 후에도 최대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SKT는 업계에서 처음으로 월 2만7000원 5G 온라인 전용 요금제도 내놓았다.

LG 유플러스는 월 3만7000원에 데이터 기본 제공량 5GB, 소진 시 최대 400kbps로 이용할 수 있는 실속형 요금제 '5G 미니'를 출시했다. 월 4만2000원에 데이터를 24GB까지 사용할 수 있는 '5G 다이렉트 42'와 월 3만 원에 데이터 5GB

SKT, 월 3만9000원에 6GB 제공 업계 최초 2만원대 요금제도 출시 LG유플러스는 월 3만7000원에 5GB

일각 "통신비 경감 효과 미미" 지적 업계 "소비자 이용패턴·니즈 반영 합리적 5G 요금제 더 선보일 것"

를 제공하는 '5G 다이렉트 30' 온라인 요금제도 선보인다.

이번 출시로 이통 3사 모두 3만원대 5G 요금제를 마련하게 됐다. KT는 지난 1월 이통 3사 중 처음으로 3만7000원에 4GB 데이터를 쓸 수 있는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3만 원대 요금제는 총선을 앞두고 가계통신비를 경감해야 한다는 연이은 정부의 압박 속에 등장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1분기

사명	기본 데이터 제공량	가격
SKT	6GB	3만9000
	6GB(온라인 전용)	2만7000
KT	4GB	3만7000
LG U+	5GB	3만7000

* 출처: 각 사

이내에 3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주 이통3사의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상향도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 이뤄졌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

회는 이날 협의회를 열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단통법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일선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통 3사의 3만 원대 요금제가 제공하는 데이터양이 여전히 적어, 소비자가 선택할 유인이 적다면서 실효성

에 의문을 제기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내 5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7.9GB에 이른다. 구형 기종과 고가 요금제에 집중된 전환 지원금과 비슷한 맥락의 비판이다.

업계에서는 요금제 개편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필요와 사용량에 맞춘 요금제가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 요금제 개편으로 SKT의 5G 요금제는 기존 43종에서 49종으로 확대됐다. KT의 경우 지난해 기준 35종에서 올해 3월 기준 40여종으로 늘어났다. LG유플러스도 5G 요금제가 30여 종에 이른다.

김지형 SKT 통합마케팅전략담당은 "5G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고객의 다양한 니즈와 이용 패턴을 반영한 5G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다"라며 "SKT는 앞으로 고객의 눈높이와 실질적인 혜택을 고려한 합리적인 5G 요금제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우리 기자 inglass@

'30돌' 넥슨 새 사령탑에 이정현·김정욱·강대현... 흥행·실적 기대감 쑥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넥슨이 리더십에 변화를 예고했다. 5년간 넥스코리아를 성공적으로 이끈 이정현 대표는 넥슨 본사 대표로 취임해 글로벌 사업을 진두 지휘한다.

넥스코리아는 '크레이지아케이드·메이플스토리·던전앤파이터' 등 굵직한 넥슨의 대표 게임 개발을 총괄한 강대현 최고운영책임자(COO)와 내외 커뮤니케이션 전반을 이끈 김정욱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CCO)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강 대표는 게임 개발에 집중하고 김 대표는 회사의 경영을 전담한다. 넥슨을 이끌던 오웬 마호니 대표는 이사회에 잔류해 고문 역할을 한다.

27일 넥슨에 따르면 이정현 넥스코리아 대표가 이사회를 통해 일본 법인 대표로 취임했다. 이 대표는 글로벌 사업을 총괄할 예정이다. 이 대표 체제에서

'샐러리맨 신화' 이정현, 글로벌 총괄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김정욱은 경영 'AI조직' 이끈 강대현, 게임개발 전담

넥슨은 지속 가능한 IP(지식재산권)를 통해 게임사를 넘어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거듭나고 글로벌 확장 전략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입사원에서 14년 만에 초고속 승진으로 샐러리맨 신화를 쓰며 5년간 넥스코리아를 이끈 이대표는 넥슨의 글로벌 연간 매출을 5년 새 50% 이상 상승시켰다. 이 대표가 취임한 해 2조5000억 원 대였던 매출은 2020년 국내 게임사 최초로 3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연 매출 3조9323억 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 '던전앤파



이정현 넥슨재팬 대표, 김정욱 넥스코리아 공동대표, 강대현 넥스코리아 공동대표

이터 모바일·메이플스토리·블루아카이브·데이브 더 다이버' 등 다수의 신작을 성공적으로 출시하는 등 안정적인 리더십을 선보였다. 넥슨은 제2의 메이플스토리, 제2의 던전앤파이터 등 효자 IP를 발굴해 장기적인 성장 체제를 갖춘 신규 파이프라인 구축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넥스코리아는 게임 개발과 신사업을 총괄하는 강대표와 경영 전반을 책임지는 김 대표의 투톱체제를 구축했다. 넥

스라이브게임 개발을 지휘한 강 대표는 2017년에는 넥슨의 인공지능과 데이터사이언스 관련 신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조직 인텔리전스랩을 이끈 인물이다. 2004년

강 대표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유저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며 성장해 온 넥슨의 공동 대표이사를 맡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며 "넥슨의 차별화된 강점들을 극대화하면서 '넥슨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해나갈 계획"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대표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사회공헌, 인사, 홍보 등 경영 지원과 커뮤니케이션 부문 전반을 이끌어왔다. 2013년 넥슨에 합류해 2015년 기업문화와 대외업무 담당 전무, 2016년 커뮤니케이션 본부장을 거친 후 2018년 넥슨재단 이사장, 2020년 넥스코리아 CCO를 맡았다.

김 대표는 "올해는 넥슨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넥슨이 대내외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구성원 및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넥슨만의 문화를 잘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나리 기자 nari34@

1월 중소제조·서비스업 생산 동반증가... 소매판매는 감소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소매판매액이 감소하면서 중소기업의 경기 회복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7일 발간한 'KOSI 중소기업 동향 3월호'에 따르면 1월 소매판매액은 51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했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구매력 약화 등으로 소비 감소 전환했다.

해외여행 증가 영향으로 '면세점(+99.5%)' 판매가 크게 늘었지만, 기저효과와 고금리 지속 등의 영향으로 '대형마트(-6.7%)', '슈퍼마켓·잡화점(-11.2%)', '전문소매점(-4.4%)' 등에서 판매가 줄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1% 증가했다. 여행 및 교통서비스(+25.8%) 등 서비스(+14.6%)의 견조한 증가와 가전(+15.0%) 등이 크게 늘어 증가세가 지속했다.

취업자, 전년보다 27.5만명 늘어 창업기업 12만개... 14.6% 증가 고금리·고물가에 소매판매 1.5%↓

반도체경기 호조와 글로벌 교역 회복 등으로 수출 중심으로 경기 부진은 완화되고 있다. 1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경기호조와 조업일수 증가(+2.5일)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12.2% 증가했다. 중소서비스업 생산은 조업일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운수·창고'와 '금융·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3% 증가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전망 지수는 상승했으나 전통시장은 하락했다. 중소기업의 3월 전망 SBHI는 전월 대비 6.4포인트(p) 상승한 81.8을 기록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소상공인 전망지수는 봄·신학기 기대

감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9.4p 상승한 74.6을 기록했다. 반면 전통시장은 명절 효과가 사라지면서 11.3p 하락한 61.9를 기록했다.

고용여건이 양호해지면서 대부분 업종에서 중소기업 취업자가 증가했다. 2월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2495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만5000명 늘어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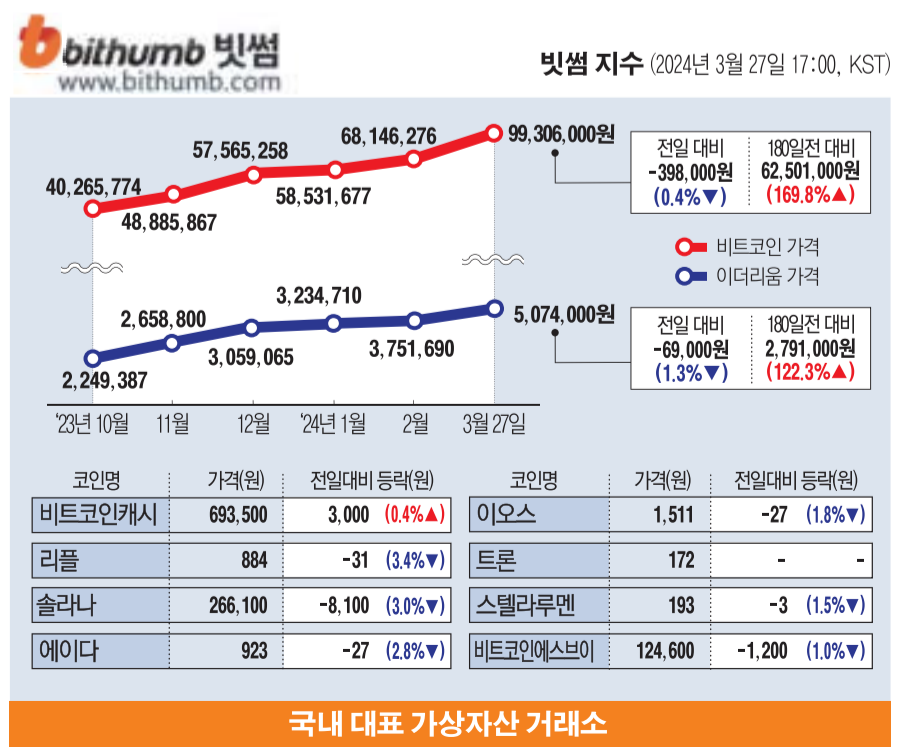
'1~4인 업체'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만9000명 늘었고, '5~299인 업체'는 23만6000명 늘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상용근로자(+33만1000명)와 임시근로자(+17만3000명)는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17만1000명)는 감소했다.

1월창업기업수는 12만1183개로 전년 동월 대비 14.6% 증가했다. 등록일수 증가(2일)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13.6%)', '건설업(+18.1%)', '서비스업(+14.6%)' 등 주요업종에서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기술기반창업기업수는 '지

식기반서비스업(+10.2%)'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7% 증가한 2만2473개를 기록했다.

중기연은 "최근 중소기업의 생산 활동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증가했고, 창업기업수도 크게 증가한 반면 소매판매는

지난 1월 설 명절 영향과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소비여력 약화 지속으로 감소했다"며 "정책당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촉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수천 기자 int1000@



기술력 앞세운 의료 AI 기업... '89조 해외시장' 뚫는다

(2027년 전망치)

글로벌 영토 확장 본격화

국내 의료 인공지능(AI) 기업이 기술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이아이트릭스는 최근 국내외 9개 벤처기업 투자사로부터 총 271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유치를 마무리했다. 확보한 신규 자금은 기술 고도화와 신제품 개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등에 사용된다. 이번 시리즈B 라운드에서 글로벌 투자사의 투자도 끌어내며, 본격적인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에이아이트릭스는 환자 상태 악화 예측 AI 솔루션 'AITRICS-VC(바이탈케어)'를 개발한 생체신호 기반 의료AI 기

ATRICS, 271억 원 투자유치

美식품의약국 승인 등에 사용

뷰노, CB 104억 원 발행 결의

해외진출 위한 운영자금 확보

기술력 강화 팔 걷은 제이엘케이

선우준 최고의학 부책임자 선임

업이다. 바이탈케어는 입원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패혈증, 사망, 심정지 등의 상태 악화를 조기 예측하는 의료AI 소프트웨어로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강남세브란스병원, 고려대 안암·구로병원 등 40여 개 병

원에 도입됐다.

김광준 에이아이트릭스 대표는 "이번 투자유치로 각 분야에서 전문 인력을 확충해 의료 AI 연구를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개척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하겠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진출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뷰노는 최근 이사회에서 아트만자산운용과 발랑스인베스트먼트가 공동 설립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대상으로 104억 원의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의했다. 이번에 발행되는 영구CB는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며, 최대 60년 만기로 상환권을 회사가 보유한다. 이번 CB 발행으로 뷰노는 해외 진출을 위한 영업비용 등 운영 자금을 확보할 예정이다.

뷰노는 올해 AI 기반 뇌 정량화 의료기

기 '뷰노메드 딥브레인'의 미국 출시를 앞두고 있다. 또 AI 기반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 '뷰노메드 딥카스'의 연내 FDA 인허가 획득을 목표로 현지 의료기관과 임상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제품은 지난해 6월 국내 의료AI 업계 최초 FDA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김준홍 뷰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영구 전환사채 발행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과감한 해외시장 진출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이엘케이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선우준 박사를 최고의학 부책임자(Vice CMO)로 최근 선임하며 기술력을 강화한다. 선박사는 신경두경부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오랜 기간 AI를 활용한 뇌질환 진단 분야를 연구해 온 의료AI 전문

가다.

올해 제이엘케이는 FDA 510K(시판 전허가)를 획득해 자사의 5개 솔루션에 대한 AI 의료기기 신청을 추진한다. 전문인력 영입을 통해 뇌혈관질환 AI 솔루션의 임상적, 기술적 고도화는 물론 영상의학 분야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추가 기술 개발을 추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국내 의료AI 시장은 초기 단계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은 높다고 평가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의료AI 시장 규모는 2027년 약 122억 달러(약 16조 2500억 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의 경우 ASTI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2027년 약 674억 달러(89조 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노상우 기자 nswreal@

셀트리온도 뛰어든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개발... 뭐길래?

아미코젠·휴온스도 SC제형 개발에 눈독
약물 확산 속도 빠르게해... 5분 내 투여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반 피하주사(SC)제형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SC 제형은 기존 정맥주사(IV)보다 효능과 편의성이 높고 오리지널 특허 만료와 상관없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인간 히알루로니다제는 SC제형 변경의 핵심 기술이다.

27일 본지 취재 결과 셀트리온, 아미코젠, 휴온스가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반 SC제형을 개발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26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SC제형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서진석 셀트리온 대표는 이날 "특허가 끝난 제품은 알테오젠 같이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제품을 만들고 있다. 모든 제품은 아니지만, 인간 히알루로니다제가 필요한 제품은 자체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현재 임상에 진입한 단계는 아니고, 개

기업명	물질	개발현황
셀트리온		연구 초기 단계
아미코젠	신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연구 초기 단계(2년 내 개발 목표)
휴온스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PH20	임상 1상 준비 중

발 초기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가 진전되면 인간 히알루로니다제가 필요한 바이오시밀러에 적용해 임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반 SC제형 개발에 성공한 회사는 한국 알테오젠과 미국 할로자임 뿐이다. 알테오젠은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반 SC제형 변경 플랫폼 하이브로자임으로 글로벌 빅파마와 협업하고 있다. 지금까지 7조 원에 달하는 4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했다. 최근엔

미국 머크의 키트루다 SC제형 계약을 비독점에서 독점으로 변경했다.

인간 히알루로니다제는 인체 내 피하에 존재하는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효소다. 피하조직의 투과성을 높여 약물의 확산 속도를 빠르게 하고, 피부 안쪽 혈관으로 흡수될 수 있게 해 약물확산제로 사용된다. IV제형을 SC로 변경하는 기술의 핵심이다. 피하로 주사된 히알루로니다제는 약물을 빠르게 침투시키고 2~3시간 주사를 맞는 IV제형과 달리 장소 상관없

이 5분 내로 투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SC제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국내 기업도 개발에 나섰다. 바이오 소부장 기업 아미코젠은 최근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개발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아미코젠은 4년 전부터 SC제형에 필요한 인간 유래 히알루로니다제를 선정하고 분석해 왔다.

아미코젠은 할로자임과 알테오젠이 사용하는 '히알루로니다제 PH20'이 아닌 새로운 인간 유래 히알루로니다제를 개발 중이다. 현재 SC제형 기술은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PH20'을 바이오의약품과 섞어 피하로 주사한다. 아미코젠은 기존 제품과 다른 인간 유래 히알루로니다제를 사용해 효능 향상, 열 안정성과 생산성이 개선된 제품을 개발해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다.

아미코젠은 인천 송도에 SC제형 히알

루로니다제 생산시설도 갖췄다. 현재 자회사 로피바이오에서 개발 중인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에 히알루로니다제를 적용해 키트루다 SC제형 제품 개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휴온스는 자회사 휴온스랩을 통해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HLB3-002'를 개발한다. 회사에 따르면 최근 오리지널 의약품인 할로자임사 히알루로니다제와 추가 비교 시험한 결과 동등한 효능을 확인했다. 다만 할로자임과 서열이 동일해 특허 장벽을 넘어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휴온스는 올해 임상시험계획(IND) 신청할 예정이며, 2025년 말 품목허가 획득이 목표다. 이를 위해 히알루로니다제 개발부를 신설해 관련 부서를 통합하고, 협력 파트너를 확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민 기자 imfactor@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개발 열풍... 대장암·염증성 장질환 해법 찾나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개발에 대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암과 면역질환 등 미충족 수요가 큰 난치성 질환 분야에 해당 기술을 접목한 신약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망 신약 후보 물질 중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접목한 사례가 늘고 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 공동체를 의미한다. 소화기관 내 미생물이나 피부에 상존하는 피부 미생물군 등 체내에 있는 미생물과 여가에서 유래한 물질이 신약개발에 활용된다.

체내 미생물이 면역력 조절에 관여하는 만큼, 마이크로바이옴 신약개발은 항암과 항염증, 자가면역질환 분야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켈바이오텍, 메디톡스, 고바이오랩 등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연구개발(R&D)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다.

켈바이오텍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대장암 신약후보물질 'PP-P

기업 (후보물질)	개발 단계	타깃 질환
켈바이오텍 (PP-P8)	1상 IND 승인	대장암
리비움 (LIV001)	1상 완료	염증성 장질환
고바이오랩 (KBL382)	중국 및 싱가포르 특허등록	염증성 장질환

소화기관·피부 미생물 유래 물질 켈바이오텍·메디톡스·고바이오랩 최근 임상 1상 승인·완료 잇따라

8'의 1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 받았다. PP-P8은 한국산 유산균을 활용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경구용 유전자 치료제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전의 신약이다. 대장암 세포를 사멸시키는 항암 단백질 'P8'을 대량 복제 생산한 'CBT-SL4'를 유전자재조합 과정을 거쳐 생산한다. 켈바이오텍은 유산균 약물전달시스템(DDS), 항암 치

료용 재조합 유산균 등 기술 플랫폼을 활용해 당노 치료제, 위암 치료제 등으로 파이프라인을 확대할 예정이다.

메디톡스는 관계사 리비움 통해 염증성장질환(IBD) 치료제 후보물질 'LIV001'의 호주 임상 1상을 최근 완료했다. LIV001은 면역 조절 효능이 있는 '렙타이드 VIP유전자'를 미생물에 도입해 제작한 유전자재조합 기반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이다. 리비움은 LIV001의 안전성 데이터를 토대로 신약의 초기 유효성 평가를 위한 다국적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사전

미팅을 진행하고 글로벌 임상에 필요한 요건을 확인했다.

고바이오랩은 신약후보물질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케이 KBL382'를 중국 및 싱가포르에서 특허등록했다. 동물실험 단계에서 KBL382에 대한 항염증 및 면역조절 기능을 보여 염증성장질환 치료제로 개발될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에 주요 국가에서 KBL382 관련 특허를 등록해 권리를 확보할 방침이다. 향후 중증 환자가 장기 복용 시에도 부작용 위험이 낮고, 5-아미노살리실산과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인플릭시맙 등 기존 치료제와 병용투여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한다.

바이오업계한 관계사는 "FDA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최초로 허가한 것이 불과 2년 전이다. 항암, 면역질환 치료제 기술 가운데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다"며 "시장은 성장 초기 단계지만,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돼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성주 기자 hsj@

동성제약 '포노젠' 임상 2상 IND 승인

췌장암 환자 대상 광역학 치료 주사

동성제약은 자체 개발 광과민제 '포노젠'의 임상 2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포노젠은 빛에 반응하는 광민감제 특성을 이용해 정상 세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를 사멸 가능하도록 동성제약의 자체 개발 의약품이다. 최근 SCI급 학술지에 연이어 등재되며 우수한 성과를 선보이고 있다.

임상 2상은 절제가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항암화학요법의 추가 치료로 포노젠(DSP1944) 주사를 이용해 광역학 치료(PDT)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한다.

동성제약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포노젠의 임상시험에 속도를 가속할 예정이다. 또 회사 측은 추가로 복막암에 대한 광역학 진단(PDD)의 임상시험도 신청할 예정으로, 국내 유일의 광역학 치료(PDT)와 진단(PDD)의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힐 계획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

〈MZ세대〉

‘민지’ 홀리는 롯데몰 수원... 쇼핑몰 첫 ‘무신사’ 유치

입점 점포 강화 총력전

‘유통맞수’ 롯데와 신세계가 수원 상권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롯데몰 수원이 스타필드 수원에 맞서기 위해 입점 점포(테넌트)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세계가 MZ세대를 겨냥한 스타필드를 선보이자 나온 대응책인데, 롯데는 연내 롯데몰 수원의 그랜드 오픈 직전까지 테넌트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29일 롯데몰 수원 2층에 약 1045㎡(315평) 규모로 ‘무신사 스탠다드’ 매장을 연다. 무신사 스탠다드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2017년 론칭한 패션 자체 브랜드(PB)다. 2021년 홍대에 1호점을 오픈한 이후 현재까지 서울과 부산, 대구 지역에서 총 6개의 오프라인 로드샵을 운영 중인데, 유통업계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매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몰 수원은 무신사 스탠다드 매장을 통해 슬랙스, 블레이저 등 오피스 캐주얼

오픈 10년 만에 대대적 리뉴얼 수원점 1030세대 구성비 높아
 스포츠·키즈 등 상품군 강화도
 스타필드 수원 대응 전략 해석

뿐만 아니라 인기 패션 유티버 ‘핏 더 사이즈’와 협업한 시티 레저 컬렉션 등 다양한 남성 및 여성 패션 상품들을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짧은 동영상(숏폼)을 찍는 젊은 층 수요를 겨냥해 매장에 라이브 피팅룸을 설치했고 매장 전면에는 초대형 스크린을 배치했다.

2014년 문을 연 복합쇼핑몰 롯데몰 수원은 현재 브랜드 리뉴얼이 한창이다. 오픈 후 10년이 지난 만큼, 젊은 층이 선호하는 테넌트를 유치해 매출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롯데몰 수원의 1030세대 고객 구성비는 롯데



롯데몰 수원에 들어서는 무신사 스탠다드 매장.

사진제공 롯데쇼핑

데백화점 전점포 평균 대비 약 10%포인트 높다.

롯데몰 수원은 지난달 스포츠, 골프, 키즈 상품군을 강화했다.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공을 들여 총 58개의 매장을 열었다. 특히 스포츠 테넌트를 처음 조성했는데, 1322.3㎡(400평대)의 ‘나이키 라이즈’가 대표적이다. 나이키 라이즈는 경기남부권 최대 매장으로 스포츠, 라이프

롯데몰 수원의 테넌트 강화 전략은 스타필드 수원을 겨냥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롯데몰과 스타필드 간 거리는 약 2km에 불과한 만큼 두 쇼핑몰 간 ‘젊은 소비층 모시기 경쟁’이 불가피하다.

신세계그룹은 올해 1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연면적 약 33만1000㎡(10만평), 지하 8층~지상 8층 규모의 스타필드 수원을 오픈했다. 하남(46만㎡), 고양(36만㎡) 다음으로 큰 스타필드 수원은 ‘스타필드 2.0’을 표방한다. 기존 스타필드가 가족 중심의 1세대 복합쇼핑몰이라면, 스타필드 수원은 한 차원 더 진화해 MZ세대를 본격 겨냥한 점포다. 패션 스파(SPA) 브랜드 자라가 3570㎡(1080평)의 국내 최대 규모 매장을 낸 것도 이 때문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수원은 다수의 대학교와 기업들이 있어 대표적인 젊은 상권”이라며 “롯데몰 수원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들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이탈리아 여행 간 기분... 녹화 아니죠?”

CJ온스타일 이원생중계 호평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듀얼소닉’ 세계 뷰티 박람회서 첫 단독 부스 4월 국내출시 ‘듀얼소닉 알토’ 공개



듀얼소닉 한국-이태리 이원생중계 방송 장면. 사진제공 CJ온스타일

“이탈리아 여행 간 기분”, “녹화된 화면 아니고 실시간이죠?” 22일 밤 11시 55분 CJ온스타일이 진행한 프리미엄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듀얼소닉’ 방송을 본 소비자의 실시간 댓글이 폭발적이었다. 이날 방송은 한국-이탈리아 이원생중계 방송이었는데, 듀얼소닉이 21일부터 23일까지 ‘2024 이탈리아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박람회’에 참여했기 때문. 이 박람회는 1967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뷰티·미용 박람회로, 듀얼소닉은 첫 단독 부스를 마련했다. 듀얼소닉은 박람회에서 4월 국내 출시 예정인 신제품 ‘듀얼소닉 알토’를 선공개했다. 독일 외 20개국 해외 바이어들은 듀얼소닉 부스를 방문해 차별화된 기술력과 제품력에 주목했고, 300여 건이 넘는 상담이 성사됐다.

CJ온스타일은 이번 이원 생중계 방송을 위해 MD·PD·쇼호스트 등이 9000km 떨어진 이탈리아로 직접 날아갔다. 그 결

과, 생생한 현장감과 쌍방향 소통으로 실제 박람회에 방문한 것 못지않은 즐거움을 제공했다는 평이다. 덕분에 고객들은 세계 최대 규모 뷰티 박람회를 안방 1열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었다.

앞서 CJ온스타일은 뷰티업계 게임체인저로 부상한 듀얼소닉을 주목, 몇 년 전부터 러브콜을 보냈고, 듀얼소닉은 CJ온스타일을 통해 TV 채널에 첫 진출했다. 2023년 듀얼소닉은 CJ온스타일에서만 누적 취급량 250억 원을 넘겼다. 신제품 론칭 때마다 TV부터 모바일 라방까지 CJ온스타일이 모든 채널을 활용, 전방위로 브랜드를 띄운 결과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올해 모바일 중심의 원플랫폼 2.0 전략을 강화해 더 많은 협력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현호 기자 m2h@

큐텐, AK몰 품었다... 입점 브랜드 해외 진출

큐텐이 AK플라자의 온라인 쇼핑몰을 품고 입점 브랜드의 해외 진출에 나선다. 큐텐의 자회사인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넷 쇼핑몰 AK몰과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K몰은 AK플라자에 입점된 백화점 상품을 중심으로 제휴 파트너들의 상품을 판매하며 온라인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전략적 제휴로 AK플라자는 본업인 오프라인 백화점 사업에 집중하는 한편 인터파크커머스와 큐텐의 우수한 플랫폼 경쟁력을 통해 온라인 백화점관의 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인

터파크커머스는 AK몰 입점 브랜드와 셀러들의 국내 판매는 물론 해외 진출까지 도모한다.

AK플라자 역시 큐텐 그룹의 전략적 방향성에 공감하고 온·오프라인 입점 업체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힘쓰는 방침이다.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 한 역지구(수출)는 물론, 최근 큐텐이 인수한 위시(Wish)를 활용해 미국과 유럽까지 진출을 추진한다. 또 큐익스프레스의 물류 지원으로 K브랜드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스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유승호 기자 peter@

Action for Positive Change

저탄소 친환경 기업
사람중심 가치창출 기업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
ESG 경영 선도 기업

ESG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연결하는 혁신적인 금융투자 파트너

교보증권이 함께합니다

2021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우수B 선정

2022 KIFCA 최초발간부문 우수상 수상

2023 KIFCA 최초발간부문 우수상 수상

2023 KIFCA 최초발간부문 우수상 수상

교보증권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로 고객가치를 향상시키고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도전과 창의

고객중심

정직과 성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식거래 시 온라인 매매 수수료는 0.1492%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23호-02637호(2023.07.24 - 2026.07.23)

KYOBO 교보증권

〈임시 이사회 개최〉

우리 이어 하나銀 자율배상... 농협·제일銀도 오늘 확정?

홍콩ELS 자율조정 잇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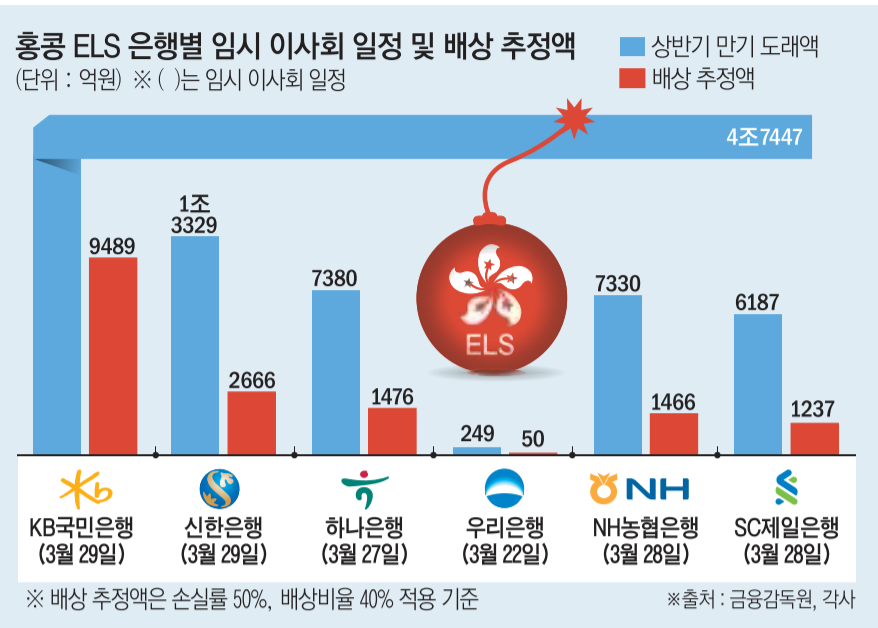
국민·신한은행 내일 임시 이사회
국민銀 상반기 배상액 1조 부담
6개 시중은행 1.6조 훌쩍 넘을 듯

하나은행이 2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홍콩항셱중국기업지수(H지수) 추가연계증권(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 에 나서기로 했다. 하나은행의 이번 결정 이향후 타행의 임시 이사회 결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은 27일 오후 개최된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하고, 자율배상안을 마련해 신속한 투자자 배상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은 22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까지 홍콩 ELS 자율조정을 결정하면서 타행의 임시 이사회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특히 하나은행의 이번 결정은 NH농협은행이나 SC제일은행 임시 이사회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당장 홍콩 ELS 판매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은행별 홍콩 ELS의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액은 △국민은행 4조7447억 원 △신한은행 1조3329억 원 △하나은행 7380억 원 △농협은행 7330억 원 △SC제일은행 6187억 원 △우리은행 249억 원 순이다. 금감원이 내놓은 배상기준안을 토대로 자율배상 기준을 마련할 경우 손실액 50%, 배상비율을 평균 40% 수준으로 적용하면 △국민은행 9489억 원 △신한은행 2666억 원 △하나은행 1476억 원 △농협은행 1466억 원 △제일은행 1237억 원 △우리



은행 50억 원이다. 우리은행은 홍콩 ELS 판매액이나 배상 규모가 현저히 적은 만큼 이날 하나은행의 임시 이사회 결정을 타행에서도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28일에는 농협은행과 제일은행이, 29일에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임시 이사회를 열고 홍콩 ELS 자율배상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관건은 상대적으로 배상 금액이 큰 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은 상반기 배상 추정액만 1조 원에 가깝다. 작년 영업이익이 4조 원대였던 것을 고려하면 상반기에만 작년 영업이익의 25%가량을 배상액으로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자율배상이 이뤄지면 주주들로부터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문제는 자율배상을 하지 않더라도 불완전 판매에 대한 금감원의 과징금 철폐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과징금 규모도 조(兆) 단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시간을 끌어 과징금 리스크를 키우는 것보단 자

율배상을 통해 과징금을 축소하는게 더 유리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은행별 임시 이사회를 통해 자율배상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면 은행들은 다음 달부터 개별 투자자들과 실제 배상 비율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별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은행들과 개별 투자자 간 배상 비율과 관련한 협의는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은행들은 금감원이다음 달 내놓을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배상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배상 규모가 상당한 만큼 분조위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배상안을 만드는 것이 배임 논란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 발표도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참고로 해서 (자율배상 여부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금감원, 내주 은행 제재 돌입 과징금·CEO 책임유무 '촉각'

ELS판매 은행에 내주 감사의견서
5월 제도개선 본격화할 예정

금융당국이 다음달 홍콩 항셱중국기업지수(H지수) 추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은행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은행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제재 조치를 확정하는 것으로 과징금 규모와 최고경영자(CEO) 책임 유무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감사국은 다음주 중 홍콩 ELS 판매 은행들에게 감사의견서를 발송한다. 감사의견서는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서 적발한 위법 사항을 명시한 서류로 공식 제재 절차의 첫 단계다. 감사의견서를 받은 은행은 내부 검토를 거쳐 소명 의견서를 보내고,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사전 조치를 만든다. 이를 근거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제재를 확정한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제재를 확정하고 5월에 제도개선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1일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법적 검토를 통해 홍콩 ELS 판매사에 대한 제재절차와 제도개선 방안을 4~5월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며 "제재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그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 원인이 무엇인지 바로 다음주부터 점검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과징금 규모와 CEO 제재 수이다. 과징금 규모는 위법행위를 통해 판매된 물량 비율에 따라 은행 별로 차이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전체 규모는 예상할 수 있다. 2021년부터 판매한 홍콩 ELS는 금융소비자보호 시행 이후 판매액 17조1000억 원이 과징금 대상이 된다. 이론적으로는 50%인 8조55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설명의무 위반 사례 등 위법 행위가 10%만 넘어도 과징금은 1조7000억 원이 부과될 수 있다.

CEO 제재도 안갯속이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미흡 책임을 물어 CEO 및 임원 제재 검토할 지 여부가 핵심이다. 당국은 내부 통제 미흡 책임을 물어 CEO를 포함해 임원 제재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은행권에서는 CEO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은행들은 직원 성과 평가지표(KPI)에 ELS 관련 배점을 높여 불완전 판매를 조장하고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문제가 다수 발견됐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기면 과태료 같은 기관 제재는 물론 임직원 제재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은행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경영진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만 있을 뿐 준수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아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범근 기자 nova@



김성태(오른쪽) IBK기업은행장이 최근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공감IBK'에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IBK기업은행

김성태 기업은행장 "리더와 팔로워, 신뢰·존중 가장 중요"

직원들과 '토크 콘서트'로 공감소통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존중'이라고 강조했다.

27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김 행장은 전날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공감IBK'에서 직원 30여 명과 소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토크콘서트는 직원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김 행장이 제안해 시작된 것으로, 편안한 공간에서 직원들과 자유로운 주제로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은 신입부터 팀장까지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

이 참석해 '리더와 팔로워, 함께 걷는 IBK'를 주제로 90분간 진행됐다.

김 행장은 조직 내 리더와 팔로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라고 생각한다"며 "세대 간·직급 간 가치관의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크콘서트에서 우리 직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많이 듣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며 행복한 조직문화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영 기자 lly0403@

PF사업장 9조 추가 투입... 내달부터 中소 등 50조 지원

금융위 '민생활력 제고' 방안

민관합동 취약부문 금융지원 강화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등 6000억
1.1조 캠퍼펀드서 신규대출 허용도

정부와 민간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의 금융지원 강화에 나섰다.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에 맞춤형 자금 41조6000억 원을 공급하고, 은행권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등에 6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부동산 PF의 경우 정상 사업장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총 9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부동산 PF 등 취약 부문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민관합동으로 중소기업에 총 41조6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별로 보증을 확대해 2조 원 규모의 성장지원을 제공한

민생활력 제고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주요 내용

-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지원 내달 41조원 공급
 - 지역신보·소상공인 신규보증 추가 공급
 - 은행권 채무조정프로그램 확대
 - 성실경영 재창업자 불이정보 공유 제한
 -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 대상 확대
- 부동산 PF 사업장·건설사 금융지원
 - PF보증 규모 25~30조원으로 확대(HUG, HF)
 - 비주택 PF보증 4조원 이내 도입(건설공제조합)
 - PF 정상화펀드 지원대상에 정상사업장 포함
 -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한 사업장 과도한 수수료 등 점검 및 사정 유도

※ 출처: 금융위원회

다. 매출 하락 등으로 일시적인 대출 상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는 은행권이 1년간 금리를 최대 2%포인트(p)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조달이 어려워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위한 기술보증 공금 규모도 1조 원 상향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을 기존 0.04%에서 0.07%로 상향해 보증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약 3만 2000명에게 1조 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보증 공금 규모는

총 23조 원이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낮춰 주는 '민생금융'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60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약 2400억 원을 출연해 대출·보증 공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약 1900억 원 규모로 전기료·통신비, 보증료 경감 등 소상공인의 경비를 지원한다.

부동산 PF 안정화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9조 원을 신규 지원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사업자보증 공금을 기존 25조 원에서 5조 원 확대한 3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비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4조 원 보증(건설공제조합)을 연내 도입해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정상화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했다. 허용 범위는 캠퍼펀드 조성액 1조1000억 원의 40% 이내다. 기존에는 PF 채권 할인매입을 통한 재구조화 목적 자금집행만 허용했다면, PF 채권 할인매입 없이도 추가 신규자금 대출이 가능하고, 본PF 사업장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유하영 기자 haha@

<10명 중 8명>

금리하락·스트레스DSR에... 새 주담대 대다수 '고정금리'

이달 주요 은행에서 새롭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10명 중 약 8명은 고정금리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부터 전 은행권 주담대에 도입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고정형 주담대에 수요가 몰린 요인으로 꼽힌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기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고정형(혼합형) 금리 주담대 신규 취급 비중은 전체 주담대의 84.3~94%에 달했다. 이달 새롭게 주담대를 받은 금융소비자들은 대부분 고정형 주담대 상품을 택했다는 의미다.

소비자 수요가 고정금리형으로 몰리는데에는 금리 영향이 크다. 올해 고정금리가 지표금리로 삼는 은행채 등 금융채 5년물 금리가 하락하면서 최저금리가 기준금리(연 3.5%)보다 낮아졌다.

이달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 범위는 연 3.35~5.36%다. 4대 시중은행의 변동금리(연 4.07~5.97%)와 비교하면 상단과 하단이 각각 0.6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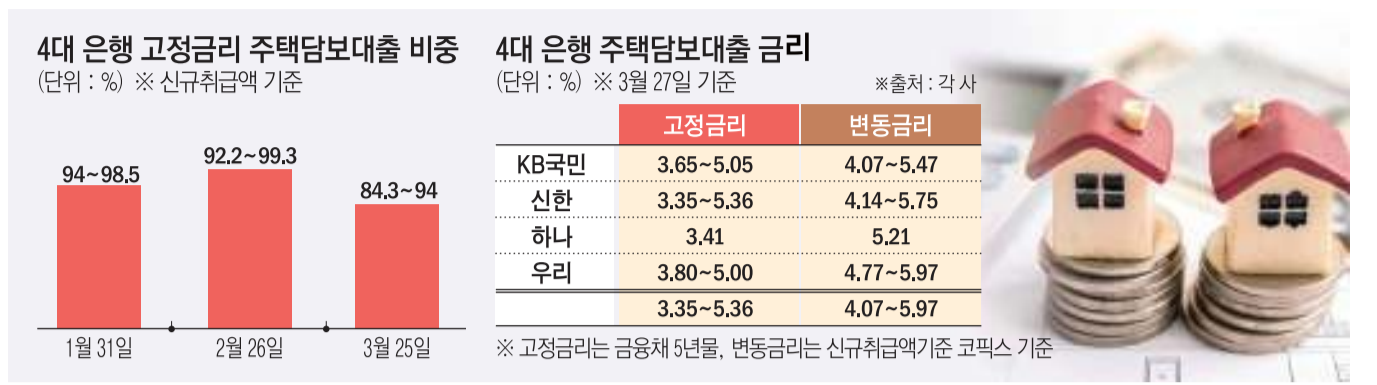
4대은행 고정형 신규 취급 비중 전체 주담대의 84.3%~94% 수준 지난달부터 스트레스DSR 적용 고정형 선택시 대출금액 한도 ↑

“일차적 원인은 고정금리 하락” 당국, 고정형 확대 장기적 추진

0.72%p 낮다.

스트레스 DSR 적용도 고정형 주담대 선택 현상을 부추겼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전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했다. 상반기까지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된다. 미래 금리상승으로 인해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미리 따져 대출 상환 능력을 엄격하게 측정하는 제도로,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 수준이 낮은 금리 고정형 대출에는 비교적 완화된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고정형 대출일수록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주담대 대출 한도가 될 감소하는 이이다.



예컨대 3억3000만 원까지 주담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5000만 원의 차주의 스트레스 DSR 도입 후 주담대 대출한도를 따지면, 변동형 대출 한도는 3억1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혼합형 대출은 3억2000만 원, 주기형 대출을 이용하면 3억2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정금리형을 선택하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고정형 주담대 취급 비중이 확대돼 가계부채 질적 개선에 기여하는 등 제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적

은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장기적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고객 선택에는 한도보다 금리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변동형과 고정형의 금리 수준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고객의 선택에는 일차적으로 금리로 인한 영향이 클 것이고, 스트레스 DSR의 영향은 이차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고정형 주담대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고정형 금리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계속 내림세를 보여서다.

은행채 5년물(AAA)은 이달 25일 3.789%로, 올해 1월 말 3.893%에서

0.104%p 하락했다. 스트레스 금리의 적용 수준도 하반기에는 현행 25%에서 늘어난 50%가 적용된다.

당국이 고정형 취급 비중을 늘리는데 팔을 걷어붙였다는 점도 한몫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 자체 주담대 중에서 일정 기간만 고정금리인 ‘혼합형’이 아닌, 만기 5년 이상인 순수 고정금리 대출 및 금리변동주기 5년 이상 주기형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관리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연내 잔액 기준 고정형 주담대 목표 비율 30%를 채워야 한다. 현재 은행권 자체 주담대에서 순수·주기형 고정금리 주담대 비율은 약 20% 수준이다.

유하영 기자 haha@

중소·사회적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年 300억 감면

내달부터 퇴직연금사업자 43곳에 업무별 비용 수수료산정에 고려 약 21만5000개 중소기업에 혜택

다음달부터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의 퇴직연금 수수료가 감면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약 300억 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선 운용 손익이 수수료와 연계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 내

달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 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의 주요 내용은 3가지다.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가 적용되는 현재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

료율을 적용받으므로 수수료 납부 부담이 크다.

이를 고려해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도록 한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이 금융기관에 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금융기관은 고객 편의 및 할인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이미 각 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등에는 사전 전산 작업 등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약 21

만 5000개 기업에 대해 연간 약 194억 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금융기관은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갖추게 된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해 수익률을 높여겠다는 것이다.

목표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목표수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보다 수수료율을 할인할 계획이다. 더불어 비대면 IRP 계좌개설 등을 통해 이미 수수료가 0%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제공한 업무의 종류와 그 비용을 고려해 수수료를 받는다.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해 수수료율을 차등(인하) 적용함에 따라 연간 약 106억 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포함해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수수료 감면 예상액은 총 300억 원으로 추정했다.

김범근 기자 nova@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신뢰받는 금융 AI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 윤리강령 선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하나금융 인공지능(AI) 윤리강령’을 선포하고 “고객, 직원, 이해관계자가 모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AI 산업 발전과 디지털 금융 선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7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함 회장은 전날 오후 서울 명동 사옥에서 고객 중심의 AI 기술활용의 새로운 방향성을 담은 하나금융 AI 윤리강령을 이끌어 선포했다.

하나금융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AI 기술 성과에 묻혀 인간성 상실 등 실질적 위험의 크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금융 AI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번 ‘하나금융 AI 윤리 강령’을 마련했다.

하나금융 AI 윤리 강령은 그룹의 비전인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하나금융그룹은 26일 서울 명동사옥에서 손님 중심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의 새로운 방향성을 담은 '하나금융 AI 윤리강령'을 선포했다. 함영주(왼쪽 네 번째)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임직원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실현하기 위한 윤리적 가치로 △포용과 공정성 △안전과 책임 △투명성 △데이터 관리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5대 원칙의 방향성을 담았다.

우선 ‘포용과 공정성’은 모든 고객이 금융서비스 이용에 차별이 없도록 하며, ‘안전과 책임’은 AI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 금융 소비자 리스크를 방지함을 목표로 한다. ‘투명성’은 고객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구현을 위해 노력하며, ‘데이터 관리’의 경우 AI 운영에 핵심이 되

는 데이터의 품질과 정확성을 지키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프라이버시 보호’는 AI의 개발과 활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고객과 직원의 프라이버시를 적극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오용을 전면방지를 뜻한다.

하나금융은 선포식과 함께 그룹 내 주요 관계사의 AI 담당 임원들이 참석해 주요 AI 기술 분야별 연구개발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하나 AI 리더스 포럼’을 발족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카카오페이-알리페이플러스 ‘유로2024’ 결승전 티켓 쏜다

카카오페이는 6월 14일부터 7월 14일까지 열리는 제17회 국제 축구 선수권 대회 ‘유로 2024’를 맞아 공식 스폰서 알리페이플러스와 함께 대규모 티켓 증정 이벤트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원정대응원과 방구석 응원으로 구성됐다.

원정대응원에서는 유로2024 결승전 티켓과 카카오페이포인트(P) 200만P를 10명에게 제공하고, 55명에게 준결승전 티켓과 카카오페이 30만P를 선물한다.

방구석응원 이벤트에는 카카오페이가 제시하는 퀴즈를 풀면 참여할 수 있다. 하나투어 여행 상품권 200만 원과 카카오페이 100만P, 63레스토랑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 BBQ 황금울리



브 순살 등 다양한 상품이 마련돼 있다. 이번 이벤트는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카카오페이는 유로 2024의 공식 독점 결제 파트너인 알리페이플러스의 핵심 협력사다.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플러스의 협력을 통해 한국 팬들은 경기장뿐만 아니라 독일과 유럽 전역의 수천 개 소매점, F&B 아웃렛 및 명소에서 카카오페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올 들어 7000억 뭉치돈... 다시 빛 보는 '브라질 채권'

<5대 증권사 1분기 판매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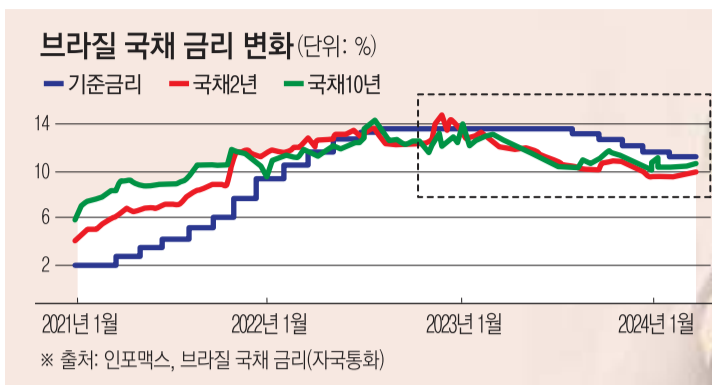
슈퍼리치 몰리는 이유

러·우크라 전쟁에 수출품 호황 정치권 안정 찾아 투자심리 개선 올해 1분기만 수익률 20% 달해 기준금리 인하로 지속 상승 기대

고액자산가(슈퍼리치)들의 뭉치돈이 브라질 채권으로 향하고 있다. 브라질 경제·정치가 안정되고 있는 데다 브라질 통화(헤알화)도 출렁임이 이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선진국보다 앞서 금리 인상을 시작한 탓도 있다.

악몽 이미지를 벗어나 자자산가들의 투자가 몰린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위 5개 증권사(미래·한국·NH·KB·삼성)에서 올해 들어 전날까지 판매된 브라질채권은 7086억 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전체 판매액 1조3879억 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를 1분기도 채 안 돼 넘어선 것이다. 연초부터 브라질 10년물을 투자했다면 투자 수익률은 이날까지 약 2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흥국 국제인 브라질 채권 투자가 활



발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정치 불확실성 해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브라질 핵심수출품인 구리·철광석·원유·콩·옥수수·육류 등 가격이 급등하면서 브라질 경제는 호황을 맞고 있다. 작년 브라질의 국내총생산(GDP)이 정부의 예상을 훨씬 웃돌며 2.9%의 성장을 기록했다. 브라질 재무부 경제정책사무국(SPE)은 올해 브라질 국내총생산(GDP)이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룰라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재정을 튼튼하게 만드는 준칙 개혁에 나선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코로나가 창궐할 당시 87.6%에 달했던 브라질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지난해 8월 기준 74%로

떨어졌다. 피치는 브라질의 국가 신용 등급을 'BB-'에서 'BB'로 상향 조정하고 전망 역시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피치는 "브라질 정부가 경제 및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개혁에 진전을 이뤘다는 측면에서 등급을 올렸다"고 밝혔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도 작년 말 브라질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 BB-에서 BB로 상향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자금이 증시로 빠르게 유입되며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는 1년 전보다 27% 올랐다.

정치·경제 안정으로 국제 부도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졌다. 여기에 수익률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브라질 10년물 금리는 연 10.50% (20일 기준)로 미국 국제금리(4.25%)의 두 배가 넘는다.

◇기준금리 인하로 매매 차익 기대=이달 20일 브라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인하했다. 브라질 기준금리는 10.75%로, 2022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금리에 2022년 7월 10.07%였던 브라질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자릿수대로 떨어졌다. 물가가 잡힌 것도 모자라 경기가 가라앉은 분위기가 나타나자 통화 완화에 나섰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물가 추정치를 3.5%로 유지하며, 다음 5월 중앙은행 회의에서도 기준금리 50bp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 금리가 떨어지면 역으로 국제 가격은 오른다. 브라질 국제 보유자들은 더 비싼 가격에 팔아 매매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브라질 국제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및 가능성을 선반영해 하락하고 있다. 브라질 1년물은 작년 초 연 15%대에서 이날 연 9.8%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2년물 금리도 연 14.0%에서 9.9%로 하락했다. 작년 초 국채를 샀다면 40%에 이르는 평가이익을 거둔 셈이다. 또 브라질 국채는 국제조세협약에 따라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금액 제한 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브라질 헤알화도 브라질 국채투자에 우호적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브라질 원·헤알 환율은 작년 초 237.50원에서 이날 270.87원까지 14% 넘게 올랐다. 국내 브라질 채권은 환노출형 상품이 대다수인 탓에 헤알화의 강세는 수익률에 호재다. 다만, 시장에서는 헤알화 가치는 급변동하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김은기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로 브라질 기준금리와 격차가 축소될 경우 채권투자 자금 유출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와 브라질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철강 가격 하락 등 헤알화 환율의 약세 요인들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희인 기자 hihello@

"ESG경영으로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윤병은 NH투자증권 사장 취임

내부 결집 목표로 화합·협력 총력 새 먹거리 창출 등 성장 포부 밝혀

"각 개인과 조직, 사업영역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작동하게 하겠다."

투자은행(IB) 전문가로 알려진 윤병은(사진) NH투자증권 사장은 27일 취임사를 통해 "NH투자증권의 도약을 위한 첫 번째 준비는 내부 역량 결집"이라며 "화합과 협력은 회사의 모든 분야에서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사업부 내, 사업부 간, 영업조직과 지원조직 간 다방면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사회적 책임·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을 실천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고 그 일환으로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인 농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협업과 상호 레버리지를 농업그룹 내에서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NH투자증권이 다양한 금융 수요를 충족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발돋움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보탬이 되도록 장기적 전략을 짜겠다는 의미다.

윤 사장은 이날 NH투자증권 정기주

주총회에서 정식으로 선임돼, 2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1993년 NH투자증권의 전신인 LG투자증권에 입사해 31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한 '원클럽맨'이다. 시장에서는 그를 채권·주식 발행과 매각, 지주사 전환 등 IB전문가로 부른다. 우리투자증권 시절 LG전자 유상증자를 비롯해 2020년 SK바이오팜 기업공개(IPO), 2021년 하이브의 '투트랙' 유상증자, 오스탐인플라트 인수 금융·공개매수 '패키지딜' 등 굵직한 딜을 성공시켰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윤 사장은 "NH투자증권은 주식회사인 만큼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사장의 또다른 큰 목표는 NH투자증권이 그동안 쌓은 정도경영과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성사한 IB

계약을 상품으로 구조화하고, 개인과 프라이빗뱅크(PB)고객, 연기금, 기관, 법인 고객 등에 공급하는 게 기본이다.

성과를 내는 직원들에게는 반드시 보상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사장은 "맹목적인 수익 추구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게 한다"면서 "내부 통제 절차를 실효성 있게 구축해 임직원의 책무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정도를 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업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게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다"며 "성과가 있는 조직에는 그에 합당한 보상과 대우가 있을 것이다. 내부역량 결집을 위한 협업과 시스템 효율화 과정 속 기여와 결과에도 투명하고 지속적인 보상을 약속한다"고 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이날 주총에서 신임 사외이사로 민승규 세종대학교 교수와 강주영 아주대학교 교수를 선임했으며, 기존 박해식 사외이사 및 이보원 상근감사위원은 연임하기로 의결했다. 또 지난해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승인하며, 1주당 현금배당금은 보통주 800원, 우선주 850원, 총 배당액은 2808억 원으로 결의했다.

김효숙 기자 ssook@



미래에셋운용, 멀티에셋자산운용 합병

"대체투자 특화 시너지 창출 기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자회사 멀티에셋 자산운용 합병을 완료했다.

27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멀티에셋 자산운용 합병을 승인했다.

멀티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100% 자회사인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다. 2016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산은자산운용을 인수한 후 사명을 멀티에셋자산운용으로 변경했다. 이후 멀티에셋자산운용은 부동산, 선박, 기업금융, 부실채권(NPL) 등에서 두각을 보이며 대체투자 특화 운용사로 성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운용자산(AUM)은 약 7조 원으로, 기존 미래에셋자산운용 운용자산(305조 원)을 합산하면 총 312조 원 규모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번 합병으로 대체투자 사업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사의 운영 역량과 경험을 결합해 미래에셋그룹의 대체투자 사업을 보다 장기적이고 글로벌 관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미래에셋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대체투자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급변하는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과 대체투자 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민지 기자 handmin@

한화투자증권 "무료 세무신고 해드려요"

우수고객 대상 내달 1일부터 진행

한화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 중 2023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해 신고가 필요한 고객이 대상이다.

서비스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이며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MTS, HT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이 대상이며, 서비스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17일까지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한화투자증권은 올해 신설된 혼인·출산 증명 공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



사진제공 한화투자증권

함에 따라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 원 이상 예치한 고객이나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5000만 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 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신청 기간은 연말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대형증권사 1년새 발행어음 5조 훌쩍... 고금리 덕 봤다

특판 이벤트 자금 확보... 잔고 36조

증권사들이 지난해 발행어음으로 5조 원이 넘는 자금을 확보하면서 전체 잔고가 36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한국·NH·KB투자증권 등 초대형 투자은행(IB) 4곳의 지난해 말 발행어음 잔액 규모는 35조9155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8.0% 증가했다. 액수로 보면 5조5724억 원 늘었다.

발행어음은 고객이 증권사에 자금을 맡기면 증권사가 기업·부동산금융 등에 투자하고 원금과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은행으로 치면 예·적금 가입자들에게 약정 기간 후 이자를 얹어 돌려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인 초대형 IB만

발행어음을 취급할 수 있다.

증권사별로 보면 한국투자증권의 지난해 말 기준 발행어음 잔액이 34%(3조 7076억 원) 증가한 14조 7309억 원으로 잔액 규모와 증가폭이 가장 컸다.

발행어음 규모가 늘어난 것은 대형 증권사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금리를 높이고 특판 이벤트를 벌이며 자금 조달에 적극적으로 나선 영향이다. 김효숙 기자 ssook@

실거주 의무 유예 한 달, 강동·강북·서초 전세물건 '깡충'

강동구 수혜단지 몰려 16.2% ↑
 '올림픽파크 포레온' 86%나
 강북구 15%, 서초구도 5.2% ↑
 강동구 전셋값 '나홀로 하락'

"강동 하반기까지 전셋값 휘청
 잠실 등 강남권까지 영향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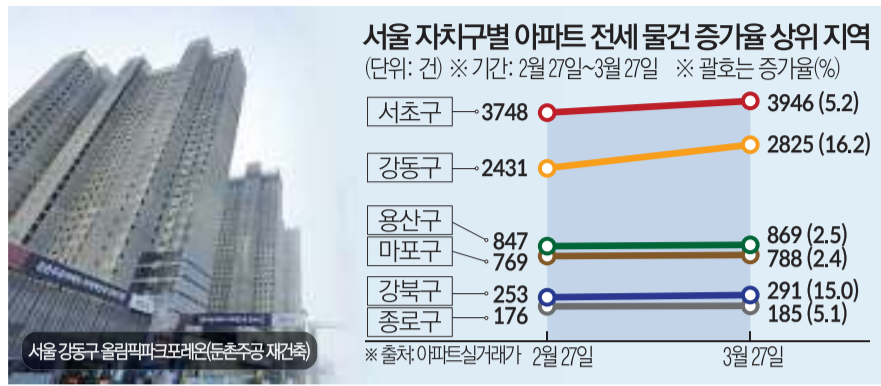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통과가 29일로 한 달째를 맞는다. 이 기간 실거주 의무 유예 혜택 단지가 대거 몰린 서울 강동구는 전세물건이 15%가량 늘고, 전셋값은 서울 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임대 전세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였다. 서울 전체 아파트 전세시장도 상승 폭이 둔화하는 등 실거주 의무 유예 시행이 전세시장 안정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확

인됐다.

27일 부동산 정보 앱 아파트실거레가 통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와 강북구, 서초구, 종로구, 용산구, 마포구는 한 달 전(2월 27일) 대비 아파트 전세 물건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동구는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6.2%(394건) 급증했다. 실거주 의무 유예 수혜 단지가 강동구에 몰린 영향이 컸다. 이번 실거주 의무 유예의 최대 수혜 단지로 꼽히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재건축)에선 최근 한 달 동안 전세 물건이 467건에서 870건으로 86.2% 늘었다. 또 길동 '강동헤리티지'는 이 기간 93건에서 149건으로 6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대 전셋값은 주변 단지 대비 수 억 원 하락했다. 이날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면적 84㎡형 전세 보증금 시세는 최저 6억 원부터다.



이 외에도 전용 84㎡형 기준 7억 원 이하 매물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강동구 내 또 다른 대표 단지인 '고덕아르데온'은 같은 평형이 평균 7억 원대에 형성된 것과 비교하면 신축단지인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셋값이 훨씬 낮은 셈이다.

강동구 이외에도 전세 물건이 늘어나는 지역이 속속 포착됐다. 서초구는 한 달 전과 비교하면 5.2%(198건) 늘어난 3946건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강북구는

15.0%(38건) 증가한 291건으로 조사됐다. 용산구와 마포구는 각각 2.5%(22건)와 2.4%(19건)씩 전세 물건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실거주 의무 유예 이후 전세 물건이 쏟아져 강동구를 중심으로 서울 전체 전셋값 상승세도 둔화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1일 발표한 3월 셋째 주(18일 기준)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강동구는 지난주 서울 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전셋값이 0.04% 하락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이달 들어 2주 연속 전셋값이 하락한 곳은 서울에선 강동구 한 곳뿐이다. 서울 전체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도 상승세가 꺾였다. 이달 셋째 주 서울 전셋값은 0.07% 상승으로 전주 0.08% 대비 0.01%포인트(p) 하락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 단지가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당장 서울 강동구 쪽은 하반기까지 전셋값이 휘청일 것"이라며 "1만 가구가 입주하는 상황은 지역 전세시장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이고, 잠실 등 일부 강남권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빌라 전세 수요 급감으로 아파트 전세 수요가 부족해져서 서울 전체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할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 재건축 길 터준다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

허용용적률 높여 분양주택 10%p ↑
 종 상향 공공기여 부담 15→10%
 "강남 외 대부분 단지 대상 될 것"

서울시가 노원구 상계동 등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곳의 사업성을 높여 재개발·재건축을 가속한다. 보정계수를 도입해 용적률은 높이고 기부채납 부담은 낮춘다.

27일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기존 가구 수, 지가, 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조정 계수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가 20~40%까지 확대된다.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이다. 예컨대 기존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지역에 보정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수를 최대 40% 높이면 허용용적률이 40%로 높아져 분양주택이 최대 10%p 증가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노원구 상계동이나 중계동 등 분양 수익이 낮아 조합원 부담이 큰 사업장에 적용할 것"이라며 "강남 지역을 제외한 재건축 단지 대부분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성 확보에서 중요한 요건인 공공기여 부담도 낮춘다. 1종→2종, 3종→준주거로 상향 시 15%를 부담해야 했

던 공공기여는 10%로 낮아진다.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 필요 시설 또는 전략육성시설을 기부채납하면 건축물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 올려 인센티브를 더 준다.

2004년 중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은 과밀 정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 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

용적률도 부여할 계획이다.

또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으로부터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 노인시설, 공원 등 전략용도 시설 조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접도율 규정은 4m 도로에서 6m 미만 도로로 완화한다. 접도율을 완화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도 주민 의사에 따라 정비할 수 있게 되며 서울 시내 재개발 가능 면적은 484만㎡에서 1190만㎡로 증가할 전망이다.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는 한 번의 통합심의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줄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미 통합심의위원회를 꾸렸고 다음 달 첫 심의부터 가동된다.

유 부시장은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

LH, 세종시에 OSC 공법 적용
 국내 최대 규모 모듈러주택 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세종 5-1생활권(스마트시티 국가기범도시) L5블록에 국내 최대 규모 모듈러주택을 스마트 턴키방식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건설산업체계를 혁신하고 모듈러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30 LH OSC주택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OSC(Off-Site Construction)는 탈현장건설 기반으로 공장에서 주요 부재의 70% 이상을 사전 제작해 현장으로 운반 후 조립하는 공법을 뜻한다. 모듈러주택은 이 OSC 공법을 활용해 공장에서 부재



세종 L5블록 단지계획 예시. 사진제공 LH

의 80% 이상을 사전 제작해 현장에 운반 후 설치하는 주택이다.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하고, 건설 중 배출되는 탄소와 폐기물도 줄일 수 있어 친환경 건설이 가능하다.

LH는 세종시 합강동 세종 5-1생활권 L5블록에 국내 최초 공동주택 스마트 턴키 방식 사업을 적용해 총 450가구의 모듈러주택을 통합공공임대로 건설한다. 공사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로봇배송, 제로에너지, 스마트 커뮤니티 등이 반영된 스마트 주거 단지로 조성한다.

오주현 LH 공공주택본부장은 "건설 생산 체계를 현장 중심에서 공장 생산으로 전환하는 건설 산업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설계·감리 특례, 지급 재 적용 예외 등 OSC 맞춤형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스마트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한양, GS에너지와 '묘도 LNG 허브 터미널' 추진 협약

한양은 GS에너지와 전남 여수시 묘도(猫島)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조성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주주간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LNG 생산·저장·유통 등 시설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한다. 또 묘도 LNG 허브 터미널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청정 에너지 허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양은 약 312만㎡ 규모의 묘도항만재개발사업부지 조성 및 LNG 저장탱크, 기화출설비, 최대 10만톤 규모의 부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 이후 한양은 LNG 저장탱크 1·2호기의 건설을 위한 본공사 착공을 진행하는 등 2027년 말 상업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정용욱 기자 dragon@



전남 여수 묘도(猫島) 에코 에너지 허브 조성계획 (안) 조감도. 사진제공 한양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은 전남 여수시 묘도에 20만㎥급 LNG 저장탱크 4기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받고, LNG 저장탱크, 기화출설비, 최대 10만톤 규모의 부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 이후 한양은 LNG 저장탱크 1·2호기의 건설을 위한 본공사 착공을 진행하는 등 2027년 말 상업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정용욱 기자 dragon@

HDC현산, 데이터센터 개발·운영 신사업 추진

"차세대 친환경 기업으로 성장"

HDC현대산업개발은 지속 성장을 위한 신사업으로 데이터센터 개발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으로 미래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센터로 개발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시행과 시공, 운영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복합도시, 인프라, 발전소 등의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그룹 데이터 운영 및 기술 경쟁력을 접목해 데이터센터의 건설을 넘어 보유 및 운영 관리하는 사업 구도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데이터센터 사업을 위한 전담 조직도 구성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진리 기자 truth@

특히 데이터센터 사업의 기반이 되는 부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문 운영 인력 공급이 유리한 인천 외 수도권 인근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HDC그룹이 올해 하반기 상업 운전을 개시하는 통영 천연가스발전소 내 부지도 사업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HDC그룹 계열사의 빅데이터 기술 및 운영 역량으로 데이터센터 사업을 차별화해 나갈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열관리 기술, 신재생에너지 등과 연계한 소모 전력 효율화 등의 차별화 전략으로 데이터센터 분야의 차세대 친환경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리 기자 truth@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청년의 꿈 하나증권이 응원합니다

내일의 도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증권이 '청년케어'로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하나증권 '청년케어'

하나증권은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약 20만명의 청년 중에서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종합검진 수준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C브랜드240108-0086

하나증권

서울 버스노조 '12.7% 인상' 요구... "실제 임금은 더 많아"

노조 인상안 따져보니

서울 시내버스노조와 사측인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임금인상 폭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조는 두 자릿수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공무원 임금인상 수준을 제시하고 있어 간극이 크다.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가 막판 조정절차에 들어갔다. 가장 큰 쟁점은 임금인상률이다. 노조는 타 지역 대비 임금이 낮다며 시급 12.7% 인상을 요구해왔다. 2019년 3.6%, 2020년 2.8%, 2022년 5%, 2023년 3.5%였던 임금인상률을 1년 만에 두 자릿수로 경증 올린 셈이다.

노조는 수도권 시내버스보다 낮은 임금 수준을 인상을 대폭 조정의 배경으로

“다른 지역보다 시급 낮아”
使 “공무원 수준 2.5%” 제시
입장차 커 협상 결렬 가능성
시, 비상수송대책 가동 준비

제시하고 있다. 인천 간선 5호봉 시급이 1만2560원인 반면, 서울은 1만2146원으로 3.4% 낮다는 것. 앞서 노조 상위단체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으로 8.4~9.3%를 제시했는데, 노조는 여기에 시급 부족분 3.4%를 더해 12.7%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 주장은 시급만 단순 비교한 결과라며, 실제 임금은 서울이 높다고 반박한다. 사측이 지난해 7대 특

별·광역시 버스기사 임금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은 서울의 95.4% 수준에 그쳤다. 경기도 역시 준공영제 실시 시내버스 임금은 서울의 91% 정도였다. 민영제는 82%에 불과했다.

이송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실장은 “무사고 포상금, 수당 등을 합친 월 임금은 서울이 훨씬 높다”며 “부산, 대구, 창원 등 타 지역의 경우 연맹이 제시한 임금 인상률과 사측이 협상을 이뤄 4.48% 수준에서 합의를 이뤘는데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주장하는 인상률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사측은 공무원 임금인상률 수준인 2.5%를 제시하고 있다. 임금비교 관련 노조 측은 “인천의 간선과 지선은 근무 조건이 다른데 이를 합쳐서 평균을 낸 것”이라며 “서울이 노동강도도 더 세다”

고 말했다.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가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환승, 청소년·어린이, 조조 할인 등이 적용되면서 서울 시내버스의 연간 손실금은 약 6000억 원에 달한다. 버스준공 영제에 따라 그만큼 서울시가 예산으로 보전해주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서울시 지원금은 5200억 원으로 파악됐다.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인상분을 수용할 경우, 연간 약 2000억 원의 추가 지원금이 투입돼야 하는 실정이다. 이 실장은 “올해 기후동행카드 시행으로 연간 250억 원의 추가비용도 발생한다”며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인상분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메우게 되는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부원장은 “노동강도, 근로조건, 물가 수준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임금인상분이 결정돼야지 지역마다 조건이 다른데 타 지역과의 비교를 임금 인상 판단 기준으로 삼는 건 곤란하다”고 평가했다.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 노조 관계자는 유급휴가, 명절 상여금 등 조건에 따라 타결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추가 조건 제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것에 대비해 지하철 운영을 하루 총 202회 늘려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치하고, 막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김서영 기자 0jung2@

‘간 큰’ 보라매병원 총무팀 직원 장례식장 수입금 7억 횡령 혐의

병원 계좌에 안 넣고 서류 조작
해임 처분... 관련자들 줄징계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총무팀 직원이 장례식장 수입금 7억여 원을 빼돌리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병원 내 행정·결산 담당부서 등 관련자들도 줄줄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학교병원 감사실은 최근 특별감사를 벌여 보라매병원 직원 A 씨의 수입금 유용·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대병원은 시립공공병원인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감사실 조사에 따르면 총무팀 소속 A 씨는 장례지도사로 활동하면서 현금으로 들어오는 장례식장 수입금을 병원 계좌에 넣지 않고 그대로 빼돌렸다. 서류에는 현금을 받고 입금한 것으로 기재한 뒤 결산 담당자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이같은 방법으로 A 씨는 2023년 한 해 동안 7억1460만 원을 횡령했고, 올해 초 회계감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발견됐다. 병원 측은 수입금 유용, 횡령, 허위보고 등을 사유로 A 씨를 해임 처분했다.

아울러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곧바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횡령액 7억여 원에 대해선 A 씨에게 변상 처분을 요구했지만, 아직 비용을 변상받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부서 담당자들도 무더기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감사실은 수입금관리 소홀로 총무팀 행정 및 결산 담당자를 해임 처분했고, A 씨의 상급자에게도 업무 태만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차상급자에게도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또 보라매병원 장례식장 수입 및 미수 결산 부정정을 사유로 재무회계과 담당자 3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보라매병원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처분했다.

감사실은 일일 현금 수익금 관리 체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일 마감, 입금절차, 보관, 인수인계 등 통합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보라매병원에 통보했다.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은 직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보험 가입금액의 한도를 상향할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다.

보라매병원 관계자는 “현금 수납건을 최소화하고 카드 수납을 지향하는 등 체계적인 방안을 세우고 있다”며 “일괄적이었던 신원보증보험도 직무별 위험도를 고려해 가입금액을 상향하는 식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spes@



벚꽃축제 열렸지만...

호수벚꽃축제가 열린 27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일대가 아직 벚꽃이 개화하지 않아 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송파구는 올해 벚꽃축제에는 야간 경관 조명 높이 조절, 벚꽃게이트, 플라마켓 등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해 벚꽃 개화기 동안 방문객이 25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같은 마약범인데... 오재원 구속, 유아인 기각 왜?

이슈Law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사진)이 최근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오재원보다 범죄사실이 훨씬 더 많고 복잡했던 배우 유아인은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됐다.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 차이는 증거인멸 여부다. 형사소송법이 구속 요건으로 정하는 기준 중 하나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재원은 마약 성분을 없애기 위해 탈색과 제모를 여러 번 하고, 헬스장과 사우나에서 몸의 수분을 반복적으로 빼는 등 온갖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재원은 지인 집 소화에 필로폰과 주사기를 넣은 안경통을 숨겨뒀다가 소화가 점검을 하던 경비원에 의해 적발되었고 경찰로 넘겨졌다. 경찰은 소화전에서 발견된 주사기와 오재원의 DNA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했고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로써 오재원의 마약범죄 혐의는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김희준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이러한 행위들은 증거인멸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경우로 구

속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과 법원에 서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고 이는 구속의 법리상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마약사범들은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탈색과 온몸 제모를 하는 방식으로 몸에 있는 증거를 없애려 한다. 그



오, 마약 성분 없애기 위해
여러 차례 탈색·제모·사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구속
“진실 은폐 시도면 형량 늘어”

러나 전문가들은 ‘완벽한 몸 세탁’이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탈색과 염색을 반복적으로 한다고 마약성분을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다. 머리카락 외에도 마약성분이 남아있는 부위는 많다. 콧털, 귓털, 항문털 등 다양한 체모와 손

톱, 발톱, 침, 땀, 각질에서도 마약성분이 검출된다. 때문에 몸 세탁으로 투약 사실을 숨기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는 모두 증거인멸에 해당되어 구속사유로 작용한다”며 “죄질을 불량하게 하고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돼 무거운 형이 선고된다”고 말했다.

최근 ‘마약 사건 전문’을 내건 변호사들이 ‘수사기관 조사 전 간이시약검사를 해준다’며 홍보하는 모습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은 대응이 오히려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수사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간이 시약검사의 정확도에 대한 입증도 되지 않았고, 간이시약검사의 짧은 감정 가능 기간 때문에 ‘음성’으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식으로 일관했다가는 구속 가능성만 높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 이전에 개별 검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증거인멸이나 허위진술을 시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수사에 불리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마약 투약 사건에서 이러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며 “진실 은폐를 시도했다가 구속과 형량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이수진 기자 abc123@

“미성년 예술인 학습·수면권 보장해야”

문체부 가이드라인 발표

미성년 예술인들의 학습권과 수면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에서 청소년 예술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서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1주일에 35시간(15세 이상은 40시간)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도 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날이 학교 휴일은 경우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는 등의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영·유아 △취학단계 △학기 중 여부 등 아동·청소년의 성장, 발달 단계 특성을 고려해 용역 제공 시간을 정해야 한다는 게 문체부의 방침이다.

이 밖에도 △건강권, 인격권, 학습권, 수면권 등 권리별 필요 보장 조치 이행 △독립된 주체로서 수익금 분배요청권 및 사용권을 명시하는 등 항목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국회에 가서 지속적으로 법안을 설명해 드렸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총선 이후 법사위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통과가 될지 22대 국회로 넘어갈지는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송석주 기자 ssp@

“유보통합 교사자격·양성체계 개선”... 교육의 질 높인다

교육부, 통합모델 시안 공개

교육부가 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 등을 담은 유보통합에 대한 통합모델 시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운영된 제도적 요소를 질적으로 상향평준화한다는 내용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 유보통합 통합모델 시안을 포함한 ‘유보통합 추진 주요사항’을 보고했다.

본지가 입수한 ‘유보통합 추진 주요사항 보고’에 따르면 추진단은 올해 상반기까지 유보통합 통합모델 시안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교육 질 제고 방안을 발표할

교원 전문성 강화·근무여건 개선 시도·시군구서 인력 전입·파견 “올해 중 마치고 법률개정 추진” 모델학교 특별교부금 120억 투입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26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에 따라 교육부는 3개월 이내 유보통합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에 따르면 교육계의 최대 관심사인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기준과 양성계획, 처우개선 및 시설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통합모델 시안이 포함됐다.

통합모델 시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전문성과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격체제를 개편한다. 또 자격제도와 연동해 질적으로 상향된 양성체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교사의 교육과 보육 활동을 전담키 위해서다.

교육과정 체계의 일관성,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 측면에서 교육과정도 개정한다. 특별한 요구가 있는 영유아를 위한 교육지원 내용은 신설, 보완한다. 영유아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안전 기준도 바꾼다.

향후 유보통합추진단은 통합모델 시안의 의견을 수렴, 확정하고 관련 법령을 올해 안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자체에 영유아 보육업무를 위해 필요 적정 정원도 배치할 방침이다. 시도교육청에 증원된 정원은 시도·시군구로부터 전입·파견, 신규 총원, 내부 전보 등으로 충원한다.

기존 시도·시군구 영유아보육업무 경험자의 전입 또는 파견을 위해 인센티브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시도교육청의 정원 증원 요청 및 검토를 마치고 지방단위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 통합을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 영유아보육 담당인력은 160명, 전국 226개 시군구의 영유아보육 담당인력은 1656명 규모다.

유아보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지난해 말

부터 3개월째 미루면서 내놓은 시안임에도 해당 내용이 일반적 개요 정도에 불과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현 전국국공립유치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치밀한 고민과 세부내용 없이 그간 무수히 반복했던 원론적인 내용들만 담긴 보고서”라며 “예산 확보 방안과 교사 자격 문제, 시설 기준 문제 등이 충분히 논의돼야 하는데, 유보통합이 정책이 줄속으로 추진될 경우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별개로 교육부는 유보통합 본격 시행에 앞서 ‘모델학교’에 특별교부금 12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빠르면 내달부터 모델학교 30곳에 대한 공모절차도 진행된다. 손현경 기자 son89@

서울 늘봄학교, 5월부터 151개교로 확대

서울시교육청, 세부 추진책 발표 내달부터 특수학교 2곳 시범운영

2024학년도 1학기 서울 지역의 늘봄학교 운영 희망교가 총 15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4월 중 시행 학교를 최종 선정하고 교육과정 연계를 최적화하는 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내달부터는 특수학교 2곳에 대해서도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한다.

27일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형 늘봄학교 세부 추진대책’에 따르면 기존 늘봄학교 운영교와 희망 학교, 지원정 추천교를 모두 합한 곳은 151개교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준비 상황 및 운영 여건을 점검해 5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시행 학교를 내달 중 최종 선정한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교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돌봐주는 정책이다.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1학기 전국 2741개교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하고 있다. 2학기부터는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앞서 서울 지역은 1학기 38개교(6.3%)가 늘봄학교에 참여해 참여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와, 서울시교육청이 1학기중으로 150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교육청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연계도 더욱 늘린다는 계획이다.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늘봄브릿지’ 콘텐츠 및 ‘교육과정을 품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늘봄과정에서 기초학력을 높이길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한글놀이, 놀이수학 등 다

양한 관련 과정을 개설해 기초학력 보충 늘봄교실이 폭넓게 운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도 내실화한다. 서울형 늘봄학교는 2시간(오후 1시-3시) 외에 오후 4시 하교를 하는 늘봄학교 이용 학생들이 1시간 더 추가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을 활용하면 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추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특수학교 등 늘봄학교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4월부터 서울정민학교와 서울정진학교를 특수학교 늘봄 시범학교로 선정,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일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늘봄학교도 안정적으로 도입·정착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 교장단 회의를 거쳐 서울형 특



25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에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늘봄학교 일일 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학교 늘봄추진단 TF를 구성, 운영 중이다. 시교육청은 특수학교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늘봄교실 등 공간 확보, 늘봄실무사 채용 지원 준비 등 인력 지원 및 프로그램 준비를 거쳐 특수학교 2개교에서 늘봄 학교 시범 운영에 나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늘봄학교 현장 지원을 통해 상반기 운영학교 대상 어려움 및 우수사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밀한 대책 마련을 통해 2학기 전면시행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정 기자 oiljung@

기업의 디지털 전환 아마란스10이 답입니다

기업의 업무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시간을 가치 있게 소비하며 언제 어디서나 모든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올인원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

Amaranth 10



새로운 차원의 융합-연결-공유를 통해 일하는 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꿉니다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하나에 담아 어떤 업무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업무속도는 혁신적으로 빨라지고 데이터의 공유부터 관리까지 편리해집니다

솔루션 관련 비용 절감은 물론, 불필요하게 낭비되었던 업무시간도 절약됩니다

회계관리 | HR | Groupware(UC) | 임직원 업무관리 | CRM | 웹오피스(문서 관리)

삼성물산 매교역 팰루시드

계약금 5%... 시스템 에어컨 전세대 무상 제공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시공하는 '매교역 팰루시드'가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과 함께 이달 고객 친화적 조건을 새롭게 제시하면서, 어려운 시장 상황에도 활발히 계약을 성사시키며 순항하고 있다.

수원 권선113-6구역 재개발 사업인 매교역 팰루시드는 조건을 변경해 기존 10%의 계약금을 5%로 줄였다. 1차 계약금 1000만 원을 먼저 내고 이후 나머지 계약금을 한달 안에 납부하면 된다. 초기 자금 마련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수요자들을 배려한 것으로, 계약자들은 계약금 5%, 중도금 60%, 잔금 35%를 차례로 지불하게 된다.

중도금 대출이자 조건도 변경된다. 매교역 팰루시드는 후불제로 진행되는 60% 중도금의 대출 이자 중 4·5·6회차 중도금에 대해 무이자를 적용한다. 여기에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까지 모든 세대에 전실 무상 제공한다.

또한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를 실시해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도 위의 변경된 조건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모든 계약자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수원의 신형 주거타운으로 각광받는 매교역 일대의 역세권 신축 대단지 '매교역 팰루시드'에 이러한 조건 변경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시장 불황에 머뭇거리고 있을 수요자들에게 조건변경이라는 기회가 열리면서 문의도 늘었다"고 밝혔다.

팰루시드 인근 단지 전용 84㎡형은 최근 9억 3000만 원에 거래됐다. 59㎡형은 최고 8억 원대에 매물 호가가 형성돼 있다. 팰루시드 분양가는 84㎡ 타입이 최고 8억 9000만 원대, 59㎡타입은 최고 7억 3000만 원대에 공급됐다.

GS건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3214가구 대단지... 마트·백화점 등 인프라 풍부



GS건설은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 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를 분양할 예정이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는 3개 단지,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37개 동 전용 59~109㎡ 총 3214가구로 조성되는 광주 북구 최대 규모 단지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59~84㎡ 1192가구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호남고속도로로 직결되는 서광주 IC와 구도 1호선(북문대로) 등이 인근이라 광역 이동이 쉽고 제2순환로, 하서로, 서강로 등을 통한 광주 전 지역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단지 바로 앞에는 경양초와 운암중이 있고 금호중앙고, 금호고, 금호중앙여고도 가깝다. 연결한 운암도서관, 운암동 학원가 등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전면으로 활성화된 생활 상권이 조성돼 있

으며 이마트 광주점, 신세계백화점,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운암한국병원, 광주현대병원 등의 생활편의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갖췄다. 단지 동쪽에는 중외공원, 서쪽으로는 운암산과 영산강, 북쪽에는 매곡산, 운암재 등이 자리했다. 중외공원에는 아시아에술정원이 올해 준공 예정이다.

단지 인근으로 광주첨단 2지구, 본촌일반산업단지, 기아광주공장 등 산업단지와 대규모 공장이 가까이 직주근접 여건도 뛰어난 편이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는 랜트마크형 옥상 조형물과 측벽 디자인이 조명형으로 특화 적용되고 단지의 상징이 될 대형 게이트와 열주가 설치된다. 가구 내 채광과 조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창호는 전으로 설계됐고 조망형 유리 난간이 적용된다.

DL이앤씨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도보 1분 초역세권... 초·중·고 교육환경 탁월



DL이앤씨는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서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를 다음달 분양한다.

부산 남산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지하 3층~지상 30층, 4개 동, 총 415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수요자 선호도가 높고 희소성이 큰 전용면적 59~99㎡형, 12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이 단지는 부산 금정구 내 첫 'e편한세상' 브랜드 아파트로, 지난해 청약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DL이앤씨가 시공에 나선다. 특히, 부산 금정구 일대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가 드문 지역인 만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부산 지역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여건을 모두 갖췄다. 특히 부산에서 선호도가 높은 평지에 조성되는 초역세권 아파트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단지 바로 앞에 부산 지하

철 1호선 두실역이 있다. 도보 1분 거리 두실역을 통해 부산대역과 서면역, 부산역 등 주요 중심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 두실역에서 세 정거장이면 도착하는 노포역에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이 있다.

단지 주변 광역 교통망 추가 개선도 기대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부산·울산·경남 일대를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어줄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2030년 완공 예정) 조성 계획에 이어, 노포~북정 양산선 도시철도(2026년 완공 예정)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생활 환경도 우수하다. 이마트 금정점을 비롯해 이미 잘 형성된 생활 인프라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남산중이 위치하며, 도보로 통학 가능한 남산초가 주변에 있다. 또 지역 내 명문학교로 꼽히는 부산과학고, 브니엘고, 브니엘고, 부산외대 등도 인접해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계룡그룹 KR산업 엘리트 남위례역 에듀포레

3면이 숲세권... 잠실까지 지하철 10분대



계룡그룹 KR산업은 성남 북정1지구에서 '엘리트 남위례역 에듀포레'를 4월 중 분양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고 계룡그룹 KR산업이 시공하는 '엘리트 남위례역 에듀포레'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북정1지구 B3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4층~지상 29층 6개동, 총 51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별 가구수는 △전용 84㎡A 457가구 △전용 84㎡B 53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단지가 들어서는 북정1지구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북정동과 창곡동 일대에 3400여가구, 1만 800여 명이 거주하게 되는 미니 신도시다.

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이 도보 약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잠실역(2호선·8호선)까지 환승 없이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또 북정역(8호선·수인분당선), 가락시장역(3호선·8호선), 석촌역(8호선·9호선) 환승을 통하면 서울 강남권 주요 지

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송파IC), 분당-수서간고속도로, SRT수서역 등도 인접해 있다.

교육환경으로는 단지 정문 앞에 유치원과 초등학교(2026년 상반기 예정), 도보권에 북정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이밖에 위례신도시 내 학원가와 서울대치 및 잠실 지역 학원가도 가깝다. 특히 단지는 영장산 숲으로 둘러싸인 '3면 숲세권' 입지로, 위례역사수변공원, 위례근린공원, 영장근린공원 등 단지 주위로 다양한 대형 공원이 자리해 있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단입 주택형으로 구성됐으며 4베이 혁신평면(일부 가구)과 전 가구 팬트리 등을 제공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을 획득해 냉·난방 등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는 등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

의정부 인근 단지보다 분양가 1억 저렴



현대건설은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에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의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금오생활권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는 총 832가구 규모로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소형 타입 위주로 구성됐다.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는 합리적 분양가를 갖췄다고 평가받는다. 이 단지의 전용 84㎡ 최고가 기준 분양가는 5억8950만 원으로 6억8000만~7억 원 대로 분양한 인근 단지보다 1억 원가량 낮다.

여기에 계약금 5%(일부 가구), 1차 계약금 500만 원 혜택을 제공한다. 통상 계약금은 분양가의 10~20%를 내는 데 계약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율을 낮춘 것이다.

이 단지는 11월 22일 이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투자 수요자의 관심도 높은 편이다.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는 의정부 경전철 효자역이 도보권이고 걸어서 3분 정도면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 중심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CTX-C 노선 의정부역(예정), 지하철 7호선(연장 예정),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일부 구간 개통,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등 교통·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생활 인프라도 갖춰져 있다. 단지 반경 1km 이내에 홈플러스 의정부점, 금오신곡동 중심상권이 있고 중증의상환자 수용률 전국 1위의 권역의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갖춘 가톨릭대 의정부성모 병원, 경기 북부 최대 규모 의료기관인 의정부 을지대 병원 등이 가깝다. 또 경기 북부 광역행정타운 이용이 편리하고 금오초와 금오중, 천보중, 효자중·고, 금오동 학원가도 인근이다.

코오롱글로벌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

대전 유성 신흥주거타운 핵심 입지 랜드마크



코오롱글로벌은 대전 붕명동에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를 다음 달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7층, 4개 동, 전용면적 84~112㎡형 아파트 562가구와 전용 84㎡형 오피스텔 129실 및 지상 1~2층 상업시설로 구성된다. 모든 가구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는 대전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착공 예정) 유성온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중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대전 지하철 1호선 유성온천역을 이용하면 대전역(지하철, KTX·SRT 경부선)까지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계룡로, 도안대로도 가까워 대전 전역으로 편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대전 유성구 붕명동 일대는 재개발 등을 통해 약 1만 가구 규모 신흥주거타운 조성이 한창이다.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는 지상 최고 47층의 초고층 높이의 랜드마크로 붕명동 일대 스카이라인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 유성구 일대는 다양한 개발호재도 속속 추진되고 있다. 대전 유성구 교촌동 일대는 530만㎡ 규모의 '대전 나노·반도체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된 바 있다. 고속·시외버스 종합 터미널인 유성 복합터미널은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해당 시설이 완공되면 테마와 특색을 갖춘 다양한 편의시설이 유치돼 지역 거주민의 편의가 극대화될 예정이다.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과 쾌적한 자연환경도 장점이다. 단지 내 상업시설은 물론 인근 NC백화점, 홈플러스 유성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대형 쇼핑시설과 유성온천역 일대 대형병원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쉽게 누릴 수 있다. 단지 가까이에 갑천이 있어 일부 가구는 갑천 영구 조망이 가능하다.

포스코이앤씨 더샵 신문그리니티

김해 지역내 희소성 높은 브랜드 중대형 단지



경남 김해시 신문1도시개발구역(이하 신문1지구) A7-1블록에 들어서는 '더샵 신문그리니티'에 지역 내외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 내 희소성 높은 브랜드 중대형 대단지로 차별화된 상품성을 갖추고 있는 데다, 더샵 신문그리니티 공급을 계기로 단지가 속한 신문1지구의 도시개발사업 및 인프라 확충이 탄력을 받고 있어서다.

더샵 신문그리니티는 김해시 도시개발사업의 완성으로 불리는 신 주거타운인 신문1지구에 들어선다. 더샵 신문그리니티는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84~102㎡ 총 1146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더샵 브랜드 대단지다. 전용면적별로는 △84㎡ 652가구 △102㎡ 494가구로, 희소성 높은 중대형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강점은 풍부한 생활 인프라다. 기존 조성된 장유·울하신도시의 완성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지 인근에 들어선 김해 최대 규모 김해관광유통단지에도 롯데아울렛, 농협하나로클럽 등 쇼핑시설과 김해롯데워터파크가 위치해 있다. 향후 테마파크와 쇼핑몰, 콘도, 호텔 등이 추가로 들어설 계획이다.

특히 지역 현안 중 하나로 꼽혔던 초교 신설안이 올해 들어 확정됐다든 점도 중요하다.

경상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김해 신문1지구초(가칭) 신설안은 지난 1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신문1지구초는 김해시 신문동 337번지 일대 1만5000㎡ 부지에 설립되며, 총 사업비 759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 9월 개교할 예정이다.

단지의 1km 인근에 들어서는 장유여객터미널도 다음달 개장한다. 김해 장유지역 최대 속원으로 꼽혔던 장유여객터미널은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4584㎡ 규모로 한 번에 버스 18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두산건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GTX 용인역·반도체 클러스터 '대형 수혜'



두산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174번지 일원에 선보이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을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7개 동, 전용면적 59~74㎡ 568가구로 구성된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은 지하철 에버라인 삼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에 들어선다. 이 노선을 이용해 수인분당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기흥역까지 10분대에 이동 가능하며 신분당선 양재역까지 1시간 만에 갈 수 있다. 단지 인근 서용인 IC를 통해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등 차량을 이용한 광역 접근성도 우수하다.

GTX-A 노선 용인역도 6월 개통 예정이다. 기흥역을 통해 구성역으로 이동하면 GTX-A가 정차하는 용인역으로 환승할 수 있다. GTX-A는 상반기 중 수서~동탄 구간, 하반기에는 운정~서용역 구간

이 개통할 예정이다. 인근 기흥역에는 GTX-F 노선이 신설될 계획이다.

또 삼가초 병설 유치원과 삼가초가 도보권에 있고 용인중, 용인고 등의 중·고등학교가 가까워 교육환경이 좋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수혜도 기대된다. 용인시 일대는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곳이 구축되고 국내외 소부장 기업 약 150곳이 입주할 계획이다.

단지는 삼성 '스마트싱스' 기반의 스마트 아파트로 지어진다. 이를 통해 음성인식으로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과 같은 삼성전자의 가전제품 제어가 가능하다.

전 가구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과 일조권이 우수하고 타입별 4베이, LDK 구조가 적용된다.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IBK기업은행이 나에게 왔다

중소기업 대출, 이제 비대면으로 신청하세요

집에서 사무실에서 클릭 몇 번이면

내 기업에 맞는 제안이 찾아옵니다

**대출을 위해 하던 수고와 노력
이제 기업은행이 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561호(2024.03.20) 유효기간(2025.03.19) •대출통로 BOX관련 자세한 문의는 BOX고객센터(☎02-729-7633) 혹은 IBK고객센터(☎1566-2566)으로 연락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보 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IBK
BOX** 대출통로

사업자라면 누구나 은행방문 없이 대출신청과 상담이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

OPEN

당행 거래고객이 아니라도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O2O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은행이 알아서 연락하는 O2O 대출 서비스

ONE-STOP

복잡하고 다양한 대출심사 서류를
비대면으로 한 번에 제출



대출신청 바로가기

“200억 투자해 새 놀이기구 내년 상반기 오픈”

이순규 레고랜드 대표

현재 부지 70% 정도 개발 상황
시장 반응 보며 지속적 투자
“어린이·가족 최고 즐거움 목표”
개장 3년차 재도약 전략 밝혀



개장 3년차를 맞은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레고랜드)가 차별화 콘텐츠와 신규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재도약에 나선다.

이순규 레고랜드 대표는 27일 오전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레고랜드만의 차별화된 콘텐츠와 놀이기구 추가 계획을 밝혔다. 2022년 공식 개장한 레고랜드는 강원도 춘천시 중도에 자리한 국내 최초의 글로벌 테마파크이자 전 세계 10번째로 세워진 레고랜드다. 레고랜드는 레고 시리즈에서 영감을 얻은 7개의 테마 구역에서 약 40개의 놀이기구를 갖춘 테마파크와 레고 테마로 꾸며진 호텔도 이루어져 있다.

이대표는 이날 “2025년 상반기 오픈을 목표로 새로운 놀이기구를 선보일 것”이라며 “200억 원을 투자해 테마파크 내 নিজ스튜디오에 스타일 있는 새 놀이기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저학년 어린이를 주 타겟으로 한 놀이기구를 선보였

지만, 새로운 놀이기구를 통해 고학년 이상의 고객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레고랜드는 개장 3년째임에도 방문객 수가 목표치에 못 미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레고랜드 관광객은 63만2871명으로 집계됐다. 레고랜드가 개장했던 2022년(5월~12월) 관광객 65만3991명보다 2만1120명 줄어든 것이다.

이대표는 향후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을 통해 레고랜드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



27일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에서 신규 놀이기구 착공식이 열리고 있다. 왼쪽 사진은 기자간담회에서 이순규 대표가 발표하는 모습이다.

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8700평 규모 부지에 이제 약 70% 정도 개발된 상황”이라면서 “시장의 반응과 무엇이 통할지 살펴 보면서 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중 4개 시즌별 테마와 함께 40여개 이상의 엔터테인먼트 쇼도 소개했다. 그는 “29일 봄 시즌 오픈을 맞아 ‘브릭풀 스프링 페스타’(Brickful Spring Festa)를 시작으로 여름(오썸머페스티벌), 가을(브릭 오일 트리트), 겨울(메리 브릭스마스)에 맞춰 4계절 특화된 테마 프로그램과 40여개 이상의 엔터테인먼트쇼를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올해 시설과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신규 론칭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오픈해 호응을 얻었던 여름 시즌 물놀이 시설 ‘워터 메이즈’가 대표적이다. 이 시설은 인근 ‘해적 클러스터’와 연계한 ‘물놀이 구역(Wet Zone)’으로 새롭게 운영한다. 또 올해 상반기 중 레고 IP(지적소유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를 살린 특별한 메뉴를 새로 런칭해 F&B 부문도 강화한다. 호텔 사업 부문도 체험거리 요소를 강화했다. 레고랜드는 투숙객 전용 다양한 프로그램과 새 단장한 실내 물놀이장 워터플레이, 매일 저녁 열리는 특별한 레고 공연 등 호텔 내에서만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도 준비했다.

이대표는 “레고랜드는 한국 고객의 니즈와 라이프스타일에 부합하면서도 오직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 참신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해 어린이와 가족 고객들에게 최고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2024 시즌을 통해 더욱 많은 고객들이 체험해 보길 바란다”고 했다.

클·사진 춘천=문현호 기자 m2h@

연세대학교의학대신 이필휴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제6회 연세조각교의학대상’에 이필휴 <사진>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 교수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상식은 다음달 8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제증원 개원 139주년 기념 예배와 함께 열린다. 이 교수는 연세대학교 총장 명의 상패·기념 메달과 함께 상금 5000만 원을 받는다.

이 교수는 파킨슨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 연구로 신약 개발 단초 마련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성주 기자 hsj@

남양유업, 뇌전증 인식개선 캠페인

남양유업은 세계 뇌전증 인식개선 날 ‘퍼플데이’(매년 3월 26일)를 맞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캠페인을 펼쳤고 27일 밝혔다.



퍼플데이를 맞아 보라색 조명을 밝힌 남산 서울타워. 사진제공 남양유업

남양유업은 2022년부터 한국 뇌전증협회와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협회와 함께 26일 남산서울타워에서 뇌전증을 상징하는 꽃 라벤더의 보라색 조명을 밝히는 것으로 행사를 알렸다. 서울 본사와 공장, 지점 등 전국 17개 사업장의 구성원들도 보라색 소품을 들고 캠페인에 참여하며 환자들과 연대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양유업은 2002년 세계 최초 액상형 케톤식 특수분유 ‘케토니아’를 개발했다. 불확실한 시장 규모로 매출이 거의 없지만 22년째 소수의 환아를 위해 제품 생산을 이어가고 있으며, 형편이 어려운 환자 가정들을 대상으로 15년째 무상 후원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kji42@

인사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담당관 전종태 △지역디지털협력과장 박근희
- ◆수협중앙회 △경제사업 상임이사 이승룡

부음

- ▲윤용섭(전 서울경찰청장·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씨 별세, 정순락 씨 남편상, 윤성원(작가)·주원(화가)·국노씨 부친상=26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 발인 29일 오전 6시 30분, 02-2258-5946
- ▲한규남(전 중앙일보 편집고문) 씨 별세, 백기자 씨 남편상, 한소려(일동후디스 이사)·석호(KTCCE 부장)·송이 씨 부친상, 김학준(현대대상 지점장)·이경식(서울대 교수) 씨 장인상, 이진영 씨 시부상=27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9일 오전 8시, 02-3410-6901
- ▲오도균(전 철도청 근무) 씨 별세, 오장현(자영업)·미숙(전 초등학교 교사)·영진(전 신한은행 센터장·서울보증보험 대리점 대표) 씨 부친상=27일, 대전시나진장례식장 3호실, 발인 29일 오전 8시, 장지 국립괴산호국원, 042-520-6690

조선소 외국인 근로자 만남 권오갑 HD현대 회장

“건강하게 금의환향할 수 있게 노력 다할 것”

HD현대 권오갑 회장이 조선소 생산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나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권오갑 회장 등 HD현대 주요 경영진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울산 HD현대 중공업 영빈관으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행사에는 HD현대중공업 및 HD현대미포의 협력사 등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7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 42명이 참석했다.

권 회장은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타

국 생활의 어려움을 위로했다. 권 회장은 “회사는 여러분이 가족 품으로 돌아갈 때 건강하게 금의환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여러분의 안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생각으로 작업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통역 지원과 한국어 교육 등 회사의 다양한 지원책 덕분에 적응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HD현대중공업은 업계 최초로 사내에 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8개 국어를 구사하는 통역 지원 인력을 상주시켜 외



권오갑(앞줄 가운데) HD현대 회장이 외국인 근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HD현대

국인 근로자들의 소통을 돕고 있다. 한식 이 입에 맞지 않거나 종교적 이유로 특정 식재료를 먹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맞춤형 글로벌 식단을 제공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우즈베키스탄 출신

근로자 루스탐준 씨는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잘 적응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욱 기자 haewookk@

현대트랜시스 ‘파트너스 데이’... “협력사와 상생”

현대트랜시스가 ‘파트너스 데이’를 진행하고 협력사와 상생을 강화한다.

현대트랜시스는 26일 주요 파트너사(협력사) 대표를 초청해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2024년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여수동 현대트랜시스 사장과 각 부문 사업부장 등 주요 경영진과 107개 주요 파트너사 대표들이 참석했

다. 여수동 현대트랜시스 사장은 환영사에서 “통합 출범 5주년을 맞은 현대트랜시스의 도전과 성장을 함께 해준 파트너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현대트랜시스가 전동화 시대 모빌리티 솔루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파트너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재 기자 2mj@



현대트랜시스 ‘2024년 파트너스 데이’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트랜시스

KB금융 ‘KB스타즈 배구단’ 늘봄학교 배구수업 ‘재능기부’

KB금융그룹의 ‘KB스타즈 배구단’ 선수들이 늘봄학교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 의정부시 삼현초등학교를 찾아 재능기부에 나섰다.

27일 KB금융에 따르면 KB스타즈 배구단 선수 4명은 전일 초등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약 2시간 동안 배구 수업을 진행했다. 배구 용어와 규칙 등 다양한 배

구 지식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함께 배구를 즐기며 코칭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배구 수업에 참여한 한 초등학생은 “TV에서만 보던 선수들이 직접 찾아와 배구를 가르쳐주니 즐거워서 시간가는 줄 몰랐다”며 “늘봄학교에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B금융 관계자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늘봄학교의 의미처럼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꿈을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늘봄학교 전국 확대’라는 교육부 정책에 발맞춰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재영 기자 ijj0403@



KB스타즈 배구단 선수들이 26일 의정부시 삼현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배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KB금융그룹

근본대책 절실한 자영업 부채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인 15%의 1.7배 수준인 약 25%로 매우 높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낮은 그리스, 터키, 멕시코, 칠레 등이다. 미국과 일본의 비중은 각각 6%대, 10%대로 우리보다 훨씬 낮다. 장기적으로 국내 자영업자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오래전부터 자영업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영업환경이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의 자영업자 소득과 상용근로자의 임금 소득 간 격차가 최근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들의 생존형 부채가 이슈화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가계부채와 사업자자금을 구분하기 쉽지 않아 그 규모도 추정 방

식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NICE평가정보는 가계부채 DB를 통해 개인사업자대출에 다 가계부채를 합한 2023년 말 현재 자영

업자대출 잔액을 1109.7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 부채의 장기 추이를 보는 한 방법으로서 한국은행 자금순환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부채'에서 '가계신용'을 뺀 수치는 코로나 발발 이후 더욱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부채는 규모와 그 증가세뿐만 아니라, 부채상환 능력 면에서도 우려되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상용근로자와 비교하여 자영업자의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도 지속해서 상승하여 둘 간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도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과 연체율 급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한번 빚을 못 갚으면, 연세 부실을 일으킬 위험이 큰 다중채무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우려해 대출만기 연장, 대한대출 확대,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자영

박덕배의 금융의 숲

가천대 겸임교수
경제학과



업자의 부채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 대책이 될 수가 없다. 국내 자영업자 부채 문제는 일시적인 경기적 요인이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과포화 상태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자영업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데서 비롯된 구조적인 요인이다. 통계청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자영업을 시작한 동기의 80% 이상은 창업 외에 다른 대안이 부재해서이다. 특히 아직 경제 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50, 60대 은퇴 후 마땅한 재취업의 길이 없어 대거 자영업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비자발적 퇴직자의 상당수가 사전 계획이나 경험 없이 준비되지 않은 무모한 생계형 자영업 창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다. 다수의 창업자가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으로 쏠리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생존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임금근로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 창업자의 절반가량이 1~3개월 미만의 짧은 창업 준비 기간만 거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자영업자 부채 대책을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명하게 펼치되, 동시에 근본적인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먼저 고령자의 은퇴 연령을 높여 임금근로자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해야 한다. 노동 수요자에게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영업을 준비 중이거나 사업 전환을 고려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준비된 창업'을 통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교육, 컨설팅, 지원 등을 확대 제공할 필요가 있다.

준비없이 뛰어난 생계형창업 많아 고령자 고용확대에 보상 강구하고 교육 강화해 '준비된 창업' 유도

'제4의 벽' 앞에 서서

연극에서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가상의 벽을 '제4의 벽'이라 한다.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벽'인데도 배우와 관객은 마치 현실에 있는 것처럼 여긴다. 그래서 한때 이 벽의 건너편에 있는 관객과 배우는 서로에게 간섭할 수 없는 존재였다.

어느 순간 벽을 허무는 작품들이 많아졌다. 영화 '살인의 추억' 마지막 장면에서 형사 박두만(송강호 분)은 총격을 받은 표정으로 관객 쪽을 바라본다. 연출자인 봉준호 감독은 '이 영화를 보고 있을 진범'을 바라보는 눈빛이라고 밝혔다. 예술작품은 관객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데, 어째서인지 정치의 벽은 오히려 높아졌다. 최근에 만난 한 택시 기사는 "총선이 이만큼 다가왔으면 한마디씩 할 법도 한데, 요새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해"라고 했다.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는 '대파 875원'에 대해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라고 해 비난을 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왜 중국에 짹짹거리느냐며 말한 '세세'(謝謝) 발언으로 '중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인'에 등극했다. "설마 2쪽 아니겠지"라며 편 가르기 발언을 한 지 2주 만이었다.

역대급 '무(無)쟁점 선거'에 "22대 국회는 역대 최악일 것"이라고들 한다. 중부세를 올리니, 낮추니 같은 논의 없이 상대를 헐뜯는 격렬한 투

노트북 너머

이난희
정치경제부 기자



쟁이 펼쳐질 것이라고.

"제4의 물결은 이미 시작됐다." 한 학계 인사가 한 말인데, 포퓰리스트들이 등장하는 순간 새로운 물결은 펼쳐졌다는 것이다. 미국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향해 달려가고, 프랑스의 최대 중도좌파 정당인 사회당은 몰락했다. 한국에서도 죽음을 불사한 듯한 조국혁신당이 부상하고 있다. 물결인지, 벽인지 모를 그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설 틈이 없는 건 아니다. 19세기 초부터 1차 세계대전 때까지 참정권을 가졌고, 제2차 세계대전 후 파시스트 체제가 무너지면서 과거 식민지국들은 민주주의를 채택하며 정치적 권리를 찾았다. 1980년대 들어선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민주화를 이뤄냈다.

4월 10일, 어쩌면 제4의 벽 앞에서 있는 현실이 나중에 돌아켜보면 "난 내 할 일을 했다"는 징표가 되어 있을 수 있다. nancho0907@

사설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에 '규제 개혁' 화답

국내 대기업이 어제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2026년 말까지 3년간 68조 원을 투자한다. 연평균 22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투자액보다 30% 많다. 연구·개발(R&D) 분야에 가장 많은 31조1000억 원을 투입해 핵심 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8만 명의 신규 채용 계획도 있다. 현대차는 완성차 부문 고용 증가에 따른 국내 부품산업 추가 고용 효과를 고려해 19만8000명 규모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했다.

LG그룹 청사진도 의욕적이다. 2028년까지 5년간 약 100조 원을 투자한다. 제조 핵심기지 육성에 투자 재원의 약 55%를 쓴다고 한다. 2022년 밝힌 중장기 투자 계획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

두 기업만의 얘기가 아니다. 삼성, SK는 앞서 올해 초 2047년까지 경기도 남부 일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각각 500조 원, 122조 원을 쏟아부었다고 했다. 수백만 개 양질의 일자리, 산업 낙수효과 등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는 천문학적 수준에 달한다.

이 모두 국내에서 연계 효과를 내는 순도 100% 투자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탕으로 시장경제 활성화에 힘써 생물학적 근원이 같은 북한과는 천양지차의 변형을 이루고도 반시장적 법제와 정서에 함몰되기 일쑤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앞다퉀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을 내리고 있다. 기업 선단을 이끄는 후대 선장들이 사업보국의 창업 정신을 계승하기 때문일 것이다. 반갑고 대견하다. 희망의 빛이 살아 있다는 얘기가니 뿌듯하기도 하다.

그러나 세계 경쟁 판세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 창출을 우선시하는 조직이다.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이 규제가 없고 파격적 조세 감면 혜택이 있는 국가로 향하고 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도도한 조류다. 여기서 자문할 필요가 있다. 우리 대기업에 언제까지 애국심만 요구할 것인가.

기업 용단에 대한 화답이 필요하다. 대기업집단지정제도, 중대재해처벌법 같이 해외에선 도무지 찾아보기도 힘든 갈라파고스 규제부터 속히 걷어내야 한다. 제임스 김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어제 산업발전포럼에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응답자 40% 이상이 노동정책과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를 주요 위협 요소로 보고 있다"고 했다. 조세 집행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주요국 대비 이례적으로 높은 최고경영자(CEO)의 형사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기업·단체·학계가 술하게 건의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녹슨 대못은 누구 눈에도 녹슨 대못이다.

기업이 있어야 좋은 일자리가 있고 소득과 소비도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적극적인 규제 개혁으로 만들어진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법인세율,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만 봐도 얼마나 후진적인가. 입법 지원이 필수적인데 거대 야당은 깃등으로도 들지 않는다. 외국 기업이라면 골백번 망하고도 남을 후진적 제약을 뚫고 죽을 힘을 다해 뛰는 우리 기업들이 용할 따름이다.



특허, 특! AI 도움을 받은 발명의 특허권

생성형 AI 및 AI 반도체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여기서 AI의 도움을 받은 인간의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앞서, 특허법상 AI 자체가 발명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는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교수가 출원한,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 특허로부터 시작됐다. 이에 대해 미국, 영국, 독일,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할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한·미·영·독, AI를 발명자로 인정 안해

AI의 지원을 받은 발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12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세계 최초로 AI 지원 발명의 발명자 요건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작년 10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AI의 안전성 확보 및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해당 지침에서, USPTO는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주체는 자연인에 한정되지만, AI의 지원을 받은 발명이 무조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인간의 기여에 초점을 맞춰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USPTO는 AI 지원을 받은 발명에서 인간이 그 발명에 '현저한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한 경우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특허 제도가 인간의 독창성을 장려하고 보상하는 기능을 하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USPTO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발명의 기여도 평가와 관련하여 이미 제시했던 Pannu Factor라는 평가 요소를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인간이 발명의 착상이나 실용화에 중요한 형태로 공헌하고, 그 공헌이 발명 전체와 비교했을 경우 충분한 정도에 이르고, 발명자에게 잘 알려진 개념이나 기술의 현상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 이상의 공헌을 하는 경우, AI 도움을 받았더라도 그 자연인을 특허법상의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USPTO는 Pannu Factor 적용의 예로, AI 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서, 단지 문제를 제시한 자연인은 발명자가 아닐 수 있지만, 사람이 특정 해법을 끌어내기 위해 구체적인 문제를 고려해 프롬프트(명령어)를 구성하는 경우 현저한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간의 '현저한 기여' 있으면 특허 보호

AI가 창작한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나라마다 또는 개별 사례마다 다르게 판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AI 지원 특허와 관련된 USPTO 지침이 어떻게 적용될지, 다른 국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AI 기술은 우리 기업들이 개량 발명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AI 도움을 받은 발명의 특허권 확보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도 각국의 관련 동향 및 쟁점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최정현 특허법인 펜타스 파트너 변리사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20,000원 1부 1,0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하고

AAM[Advanced Air Mobility]
도심내 또는 지역간 이동을 담당하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진

PBV[Platform Beyond Vehicle]
고객 맞춤형 다목적 모빌리티 플랫폼



새로운 공간경험이 펼쳐집니다

SPACE[Spatial Curated Experience]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다인승 공공 모빌리티

모빌리티 세상,
이동의 모든 순간에 편안함을 더하다

HYUNDAI
MOTOR GROUP



QR코드를 스캔하고 현대자동차그룹의
미래 모빌리티를 만나 보세요